

2024 - 현장 - 02

인천교육-2024-0265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 전아정(인천중산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 고현정(석정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지윤(인천남고등학교 교사)

김성현(가정고등학교 교사)

박종학(인천해송고등학교 교사)

서동희(강화고등학교 교사)

협력연구원 : 박희현(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현안대응팀 장학사)

엄은숙(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장학사)

자문위원 : 박용호(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정책연구소

-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팀)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 ※ 이 연구보고서 파일은 다음의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ice.go.kr> - 교육 - 교직원지원 - 교육정책연구소)

연 구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2022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발표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내신 5등급 및 수능 9등급 상대평가 및 통합형·융합형 체제)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우려 해소 필요
- 기존 연구들이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전형의 변화 예측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고 진로진학교육의 포괄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
-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대학 쏠림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진로진학교육 방향성 정립 필요

나. 연구 목적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미래 역량함양을 위한 실질적 진로진학교육 방향 모색
- 대학 입시전형과 학교현장 교육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분석하여 대학-고교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 방향 탐색
- 교육 주체(학부모,교사)의 요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진로진학교육 방향 수립

다. 연구 문제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인식은 어떠한가?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학교의 진로진학교육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의 인식 분석
 - 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인식분석
 - 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모색
- 첫 번째 연구 내용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의 인식 분석임. 2028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 기준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후 중3 학부모와 일반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각 응답에 대한 결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두 번째 연구 내용은 대학의 입시전형 설계 및 학생 종합평가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 면담을 실시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음.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 입학사정관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세 번째 연구 내용은 이상의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진로 진학교육 방향을 모색함. 진로진학교육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 적용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나.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함. 설문 문항 제작에 앞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기존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설문의 결과와 인천의 학부모, 교사의 의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슷한 문항으로 구성함. 특히 응답자의 특성을 묻는 기본정보 관련 질문과, 연구의 주요 과제인 학부모와 교사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에 대한 문항으로 제작하였음.
- 전문가 심층 면담 중 교고 교사의 면담은 학생들의 대입 준비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지도하며 대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응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고 3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또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 현장의 교육과정 과행이 예상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관련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과학교사를 면담으로 선정하였음.

- 전문가 심층 면담 중 입학사정관의 면담은 답변이 대학을 대표하는 발언이 될 수 있어 답변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학명과 이름은 모두 기호로 처리한다고 사전 공지하였고, 각 대학의 입장보다는 입학사정관 개개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음.

〈표 1〉 연구 절차 및 내용



3. 연구 결과

가. 탐구력을 신장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는 진로진학교육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주요 변화는 내신 체제 5등급제 전환, 서류평가 확대로 학생 개인의 성장과 탐구력이 중시되는 점임.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고 탐구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함.
- 이를 실행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학생의 진로탐색을 통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진로·흥미 연계 탐구활동을 설계해야 함. 또한 교사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탐구력이 신장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단순히 탐구 보고서를 요약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탐구 과정에서 학생의 단계별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며 기록의 내실화가 필요함.
-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탐구 활동을 위한 교과 간, 교과와 비교과 간 학생들의 탐구활동 공유가 필수적임. 학생의 진로 관심사와 탐구활동을 다각도에서 관찰하고 융합한 맞춤형 지도를 위한 협업 중심의 진로지도 체계 구축이 필요함.

나. 학생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는 진로진학교육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인간을 추구하는 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핵심 가치임.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서류평가 강화가 예상되고 선택과목 또한 확대되므로 학생 선택권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진로·전공·학과 탐색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목개설과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진로설계 지도를 체계화해야 함. 고등학교 3년간의 체계적인 교과목 학습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희망 계열 및 학과의 권장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와 검토를 관리·상담이 필요함.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의 과목 선택 배경과 학습 과정에서 보인 성장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함. 이 과정에서 교사의 체계적 비계설정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통한 진로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자기주도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 읽쓰 활동을 통한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시킬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음. 읽쓰 교육활동의 4P(현상(Phenomenon): 일상 관찰- 문제(Problem): 질문 구성- 과업(Project): 탐구 계획- 실천(Practice): 적용과 검증) 학습 맥락 활용은 학생의 메타인지와 자기조절 능력 증진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 활동에서 적용한다면 개인별 맞춤 진로설계를 통한 진로진학교육의 효과적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음.

다. 학업역량강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지속적 영향을 받게 되며 내신 변별력 약화가 예상되어 입학사정관과 고교 교사 모두 수능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에 단순 수능 시험 대비가 아닌 학업 역량 강화 측면에서 수능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통합형·융합형 과목체계로 수능 체제가 변화한 점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음. 특히 다각적 관점의 통합적 탐구력을 평가하는 통합사회나, 실제 맥락의 적용·탐구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과학의 수능에 대해 과목별 핵심 개념·원리의 정확한 이해, 교과 간 통합적 연계 강화, 종합적 사고력 및 논리적 표현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으로 학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4. 연구 제언

- 학부모는 자녀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므로 이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필요함.
- 교사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논·서술형 평가의 대비, 학교생활기록부의 질 제고 등 대학입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정책이 엇갈리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다양한 교육청의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I**서론 _ 3**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2. 용어의 정의 | 5 |
| 3. 연구의 제한점 | 5 |
| 4. 연구 절차 및 방법 | 6 |

II**이론적 배경 _ 19**

| | |
|---------------------------------|----|
| 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 19 |
| 2. 입시정책의 변화 방향 | 22 |

III**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의 인식 분석 _ 29**

| | |
|-------------------------|----|
| 1. 학부모(중학교) 인식 분석 | 29 |
| 2. 교원(고등학교) 인식 분석 | 39 |
| 3. 요약 및 시사점 | 54 |

IV**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인식 분석 _ 59**

| | |
|---------------------------|----|
| 1. 입학사정관 심층면담 결과 분석 | 59 |
| 2. 요약 및 시사점 | 81 |

V**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_ 87**

| | |
|--|----|
| 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종합적 분석 | 87 |
| 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 96 |

VI**결론 및 제언 _ 105**

| | |
|-------------|-----|
| 1. 결론 | 105 |
| 2. 제언 | 106 |

참고문헌 _ 108

| | |
|---|----|
| 〈표 I-1〉 연구 절차 및 내용 | 7 |
| 〈표 I-2〉 대상별 설문 문항 | 9 |
| 〈표 I-3〉 심층면담 참여자(교사) 정보 | 11 |
| 〈표 I-4〉 심층면담 참여자(입학사정관) 정보 | 12 |
| 〈표 I-5〉 교사 심층면담 질문 내용 | 13 |
| 〈표 I-6〉 입학사정관 심층면담 질문 | 13 |
| 〈표 I-7〉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 | 15 |
| 〈표 II-1〉 2028 대입제도 수능 개편 확정안 | 19 |
| 〈표 II-2〉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안) | 22 |
| 〈표 III-1〉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 관련 학부모 인식 | 29 |
| 〈표 III-2〉 학부모의 내신 변화에 대한 인식 | 30 |
| 〈표 III-3〉 학부모의 수능 변화에 대한 인식 | 30 |
| 〈표 III-4〉 학부모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대응에 대한 인식 | 31 |
| 〈표 III-5〉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자녀 진로 진학 계획의 변화 | 31 |
| 〈표 III-6〉 자녀의 진로 진학 계획 변경 시 주요 고려사항 | 32 |
| 〈표 III-7〉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대비 학습자의 주요 고려사항 | 32 |
| 〈표 III-8〉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선호 고교유형 | 33 |
| 〈표 III-9〉 고교 선택 시 주요 기준 | 33 |
| 〈표 III-10〉 고교 선택 시 주요 기준(특목고, 자사고 선호 학부모 대상) | 34 |
| 〈표 III-11〉 자녀의 사교육 이용 현황 | 34 |
| 〈표 III-1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대비 사교육 의존도에 대한 인식 | 35 |
| 〈표 III-1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대비 사교육에 대한 기대 효과 | 35 |
| 〈표 III-14〉 사교육 대비 공교육에 대한 인식 | 36 |
| 〈표 III-15〉 자녀의 대입 준비 관련 고등학교에 대한 요구 사항 | 36 |
| 〈표 III-16〉 자녀의 대입 준비 관련 교육청에 대한 요구 사항 | 37 |
| 〈표 III-17〉 자녀의 대입 준비 관련 추가적 지원 요구 사항 | 37 |
| 〈표 III-18〉 교사의 내신 영역 관련 인식 | 39 |
| 〈표 III-19〉 교사의 수능 영역 관련 변화 인식 | 40 |
| 〈표 III-20〉 교사의 수업 및 고교 영역 관련 인식 | 41 |
| 〈표 III-21〉 교사의 선호 고교 유형에 대한 인식 (1) | 42 |
| 〈표 III-22〉 교사의 선호 고교 유형에 대한 인식 (2) | 42 |

| | |
|--|-----|
| 〈표 III-23〉 교사의 수업 변화에 대한 인식 | 47 |
| 〈표 III-24〉 교사의 평가 변화에 대한 인식 | 48 |
| 〈표 III-25〉 교사의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 49 |
| 〈표 III-26〉 교사의 학생 준비 사항에 대한 인식 | 50 |
| 〈표 III-27〉 교사의 학생 지도 전략에 대한 인식 | 50 |
| 〈표 III-28〉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한 요구 | 51 |
| 〈표 III-29〉 교사의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요구 | 52 |
| 〈표 IV-1〉 입학사정관 심층 면담 범주화 | 59 |
| 〈표 IV-2〉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비율 | 61 |
| 〈표 IV-3〉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확정) | 68 |
| 〈표 IV-4〉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수 비교 | 73 |
| 〈표 IV-5〉 논술전형 실시대학의 수 | 77 |
| 〈표 V-1〉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영역별 활동 신·구 비교 | 96 |
| 〈표 V-2〉 탐구력을 신장시키는 진로진학교육 | 97 |
| 〈표 V-3〉 주도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는 진로진학교육 | 99 |
| 〈표 V-4〉 학업역량강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 | 102 |

| | |
|---|----|
| [그림 V-1]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권역별 입학설명회(고교교사-공개용) 자료 | 90 |
| [그림 V-2] 읽걷쓰 운영 도움자료 예시 (1) | 94 |
| [그림 V-3] 읽걷쓰 운영 도움자료 예시 (2) | 94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연구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연구의 제한점
4. 연구 절차 및 방법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교육계는 현재 급격한 변화시기를 겪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진로연계 교육의 도입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의 5등급 및 수능의 선다형 객관식 평가 유지 등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논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고교 내신 산출 방안대로 운영되었을 때,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김용, 2024)이라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 내신 부담이 적은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5단계 상대평가는 1등급의 비율이 증가해서 변별력이 오히려 떨어져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 전형에 새로운 전형요소가 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절대평가로 평가하던 과목까지 상대평가로 전환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부담이 증가할 것(신소영, 2023)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된 문제점과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고교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김택형외, 2023)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대입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의 정량평가 방향(황우원외, 2024)을 모색하는 연구에서도 교과 성적 외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이나 서류 정성평가 요소 도입과 학생들의 근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제도의 고민이 포함된 학생부교과전형의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입시제도의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학교현장의 진로진학 교육 방향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교의 진로진학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는 단순히 대학 입시를 대비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진로진학교육과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단순히 대입 전형 방식의 변화를 넘어, 우리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입시 전략이라는 제한된 시각을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2028 대학입시제도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와 목표, 이에 따른 대학별 입학전형의 변화 방향, 그리고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입시제도의 변화가 진정한 교육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과 지방대학의 위기 등 우리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반고 진로진학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연구는 단순한 입시 대책을 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 교육의 질적 도약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부모와 교사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며 교사와 학교의 입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대학의 입시전형과 학교현장 교육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대학 입시 전형은 학교 현장의 대입 준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학교 교육의 변화는 대학 입시 전형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학교에서의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입시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평가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된다면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에도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교육정책 수립과 학교에 유용한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첫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학교의 진로진학교육 방향은 어떠해야하는가?

2. 용어의 정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교육부,2023)은 2023년 12월 27일 발표된 것으로, 2025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부터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으로,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능’, ‘학교생활기록부’를 ‘생기부’라고 칭한다. 또한 ‘내신’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성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진학교육이란 공교육의 범위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적절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자신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일을 의미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진로진학교육이 단순히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진학교육은 대학진학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진로계발 및 탐색 역량이 대학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연계성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이 이미 알려진 피상적 수준의 논의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과 밀접하게 연관 있는 중3 학부모, 일반고 교사, 대학입학사정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은 대학 진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과정에서 실질적 역량이 함양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적인 대학 입시제도 개편의 변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연구 결과가 이미 알려진 피상적 수준의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진행하였다.

넷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본 연구 진행 중에도 구체적인 후속 지침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대학입학사정관들 역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구체적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각 대학도 이제 2028 대학 입시와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교육적 방향성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향후 구체적 후속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진로진학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 연구 절차 및 방법

가. 연구 절차

1) 학부모 및 교원의 인식 분석

먼저, 2028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조사하고,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항목별 의도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질문을 명확히 한 후, 수집한 기존 설문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연구원들의 검토와 수정을 통해 파일럿 테스트지를 완성한 후, 소규모 표본 집단에게 배포하여 응답을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수정하였다. 최종 완성된 설문지를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된 설문 대상에게 배포하여 응답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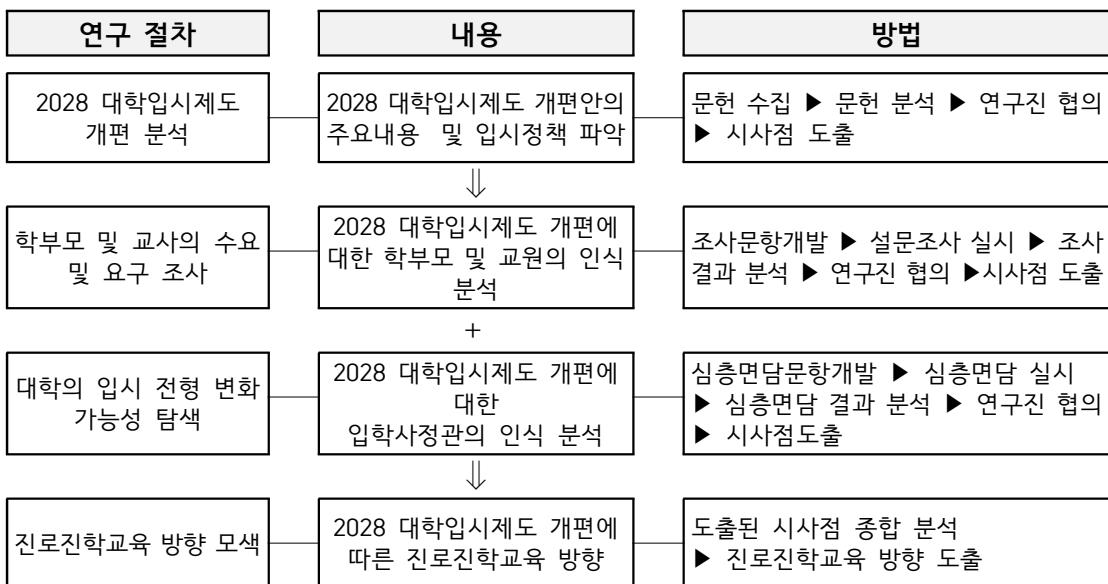
2) 입학사정관의 인식 분석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도에 따라 각 대학의 입시전형을 설계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업 성적 뿐 아니라 소질과 경험, 성장환경,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입학사정관의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대학 입시전형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대학의 입시 전형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의 입학사정관 7명을 선정하여 전문가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입학사정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지역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인천지역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며, 둘째, 학생부종합전형 등 학생선발 경험이 많은 자로서 전문가 심층면담 요청에 수락한 자로 하였다. 심층면담이 어렵다고 답변온 입학사정관 1명은 심층면담 질문지를 송부하여 답변을 회신받아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문가 심층면담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각 질문 항목별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할 것이다. 전체 연구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하며, 연구의 절차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 <표 I-1>와 같다.

<표 I-1> 연구 절차 및 내용



나.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학부모 및 교사 인식 조사는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는 양적 연구로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의 주요 목적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조사된 기준의 설문조사들을 바탕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인천 지역 중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수요와 요구를 분석하여 인천 일반고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효과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가) 설문 대상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중학생 학부모와, 개편된 입시제도에 적응하며 수업, 평가, 학생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참여 인원은 학부모 536명, 교사 219명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기발표된 설문 자료는 주로 서울에 소재한 사교육 업체의 주도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내용이다. (에듀플러스, 「2028 대입 개편 학부모 설문조사」, 종로학원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여론조사」) 본 설문은 연구의 취지에 맞게 설문 대상을 인천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의 학부모로 제한하였다.

고교 교사 설문은 2023년 10월,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진행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긴급 고교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1,174명의 교사 중 87.2%가 새 대입제도에 ‘반대’ 혹은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해으며, 92.1%는 개편된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입시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런 부정적 인식이 인천의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문항 제작에 앞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기존의 설문 결과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설문의 결과와 인천의 학부모, 교사의 의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슷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묻는 기본정보 관련 질문과, 연구의 주요 과제인 학부모와 교사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인식 및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중점사항 및 요구 사항에 대한 문항으로 제작하였으며, 각 문항은 선택형 문항과 기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서술형 응답으로 설계하였다.

기본정보 관련 질문을 포함하여 학부모 대상 설문은 ① 내신 개편과 수능 개편에 대한 인식 ② 자녀의 진로진학지도 계획 및 중점 고려사항 ③ 개편에 따른 요구 사항 등 3개의 영역으로,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사 대상 설문은 ① 내신, 수능,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에 따른 인식 ② 수업, 평가에서의 중점 고려 사항에 대한 인식 ③ 학생 진로 진학 지도 중점사항에 대한 인식 ④ 개편에 따른 요구 사항 등 4개의 영역으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이 정리된 자료를 설문지에 첨부하여 설문 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한 후 설문에 임하도록 하였다. 대상별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표 1-2〉 대상별 설문 문항

| 대상 | 질문 내용 |
|-----|--|
| 학부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2.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3. 2028 대입 개편 변경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4.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로 얻으십니까? 5. 2028 대입 개편안 맞추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6. 2028 대입 개편안의 내용 중 가장 찬성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7-1.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내신 관련 가장 우려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7-2.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수능 관련 가장 우려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7-3.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대응 관련 가장 우려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8-1.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자녀의 진로 혹은 진학 계획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8-2.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2028 대입 개편안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선호하는 고교 유형(혹은 학업 유형)이 있습니까? |

| 대상 | 질문 내용 |
|----|--|
| | <p>11. 2028 대입 개편으로 고교 선택 시 가장 고려하게 된 사항은 무엇입니까?</p> <p>12. 자녀의 사교육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p> <p>13-1. 2028 대입 개편 대비에 있어 사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p> <p>13-2. 2028 대입 개편 대비로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서입니다?</p> <p>13-3. 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공교육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4. 자녀의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고등학교에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p> <p>15. 자녀의 대입 준비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p> <p>16. 자녀의 대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p> |
| 교사 | <p>1. 지도하시는 학년은 몇 학년입니까?</p> <p>2. 담당하시는 교과는 무엇입니까?</p> <p>3.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p> <p>4.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는 무엇입니까?</p> <p>5.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본인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p> <p>6-1.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내신 영역 관련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p>6-2.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수능 영역 관련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p>6-3.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수업 및 고교 영역 관련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p>7-1.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가장 선호도가 높아질 고교 유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p>7-2. 위(7번) 답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p> <p>8. 2028 대입 개편에 대응하여 수업에서의 변화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하십니까?</p> <p>9. 2028 대입 개편에 따라 평가에서의 변화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하십니까?</p> <p>10.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대입제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1.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학생이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2. 2028 대입 개편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학생 지도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3. 2028 대입 개편에 대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p> <p>14. 2028 대입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

제작된 설문은 인천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교사들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설문 링크 및 QR코드로 배부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문 참여를 독려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다) 자료 분석

양적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집한 설문 응답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뒤, 항목별 응답자 수를 순위대로 도표화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단일변수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백분율을 활용하여 전체 응답자 수 대비 항목별 응답 비율을 계산했다. 복수 응답의 경우, 전체 응답자 수를 200%로 변환해 상대적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항 간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해 추론 통계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응답 항목 간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전문가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

가) 연구 대상

(1) 고교 교사

고교 교사 대상 설문 중 정량적 응답을 통한 표면적인 정보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입과 관련된 교육 정책 및 제도를 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하고 학생들의 대입 준비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지도하는 고3 담당 교사가 대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비교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응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고3 부장 교사를, 개편 되는 대입제도에서 가장 과행이 예상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과 관련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과학교사를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교명과 성명을 이니셜로 처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교사의 정보는 <표 I -3>과 같다.

<표 I -3> 심층면담 참여자(교사) 정보

| 연번 | 방법 | 성명 | 소속 | 직위 | 담당과목 | 담당학년 |
|----|-------|----|--------|-------------|---------------|-------|
| 1 | 심층 면담 | K | D 고등학교 | 부장교사(3학년부장) | 영어 | 3학년 |
| 2 | 심층 면담 | S | S 고등학교 | 교사 | 통합과학, 생명과학 | 1,2학년 |

(2) 입학사정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대학의 입시 전형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입학사정관들의 답변이 대학을 대표하는 발언이 될 수 있어 답변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학명과 이름은 모두 기호로 처리하였다. 각 대학의 입장보다는 입학사정관 개개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의 정보는 <표 I-4>과 같다.

<표 I-4> 심층면담 참여자(입학사정관) 정보

| 연번 | 방법 | 대상 | 소속 | 지역 |
|----|-----------|---------|-------|----|
| 1 | 심층 면담 | 입학사정관 A | A 대학교 | 서울 |
| 2 | 심층 면담 | 입학사정관 B | B 대학교 | 서울 |
| 3 | 심층 면담 | 입학사정관 C | C 대학교 | 인천 |
| 4 | 심층 면담 | 입학사정관 D | D 대학교 | 인천 |
| 5 | 심층 면담 | 입학사정관 E | E 대학교 | 인천 |
| 6 | 심층 면담 | 입학사정관 F | F 대학교 | 서울 |
| 7 | 질문지 답변 회신 | 입학사정관 G | G 대학교 | 서울 |

나) 연구 도구

심층면담은 조사, 지필검사 등과 같은 데이터 수집방법에 비해 훨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편향의 가능성, 시간의 소요, 훈련된 면담자, 일반화하기 어려움 등의 제한이 있다. (Boyce & Neale, 2006; Rubin & Rubin, 2004). 심층 면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 입학사정관들에게 미리 질문 문항을 송부하여 답변을 생각할 수 있게 시간을 주었으며, 심층면담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미리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여 실시하였다. 입학사정관 심층면담은 각 대학에 2-4명의 연구진들이 함께 방문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심층 면담에 사용된 질문 문항은 교사 심층 면담의 경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결과의 내용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내용에 집중하여 <표 I-5>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I-5> 교사 심층면담 질문 문항

| 영역 | 질문 내용 |
|-------|---|
| 기본 문항 |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대비로 가장 중요해질 평가 요소는 내신, 생기부, 수능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수능관련 개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현재 학교에서의 수능준비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학교의 수능 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학교의 수능 대비를 위해 교육청은 어떤 지원을 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이나 수능과 관련한 종합의견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대학의 입시전형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심층면담의 질문 문항은 연구진의 토의를 바탕으로 내용별로 유목화한 후 다시 협의를 거쳐 최종 심층면담 질문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문항들은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6개의 영역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① 기본 문항 5개 ② 수시-교과전형 관련 문항 2개 ③ 수시-종합전형 관련 문항 4개 ④ 수시-논술전형 문항 1개 ⑤ 정시-수능전형 문항 1개 ⑥ 종합의견 문항 1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입학사정관 심층면담 질문 내용은 다음 <표 I-6>과 같다.

<표 I-6> 입학사정관 심층면담 질문

| 영역 | 질문 내용 | 문항수 |
|-------|---|-----|
| 기본 문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학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모집전형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논의가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 대입전형은 크게 ①수시-교과 ②수시-종합 ③논술 ④정시-수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모집비율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자사고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

| 영역 | 질문 내용 | 문항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신체제 개편에 따라 학생 별의 어려움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요건 강화로 보완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요건 강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3 학생들이 수업과 목의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준비로 인한 과목수업의 파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택과목의 수가 기존 46개에서 65개로 19과목이나 증가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전공·과목에 대한 이해가 중요질 것으로 보이며, 학교에서 또한 과목 개설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정성평가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연계열 학생은 기하 및 미적분Ⅱ, 과학 진로선택과목 권장과목 지정 등) | |
| 수시-교과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의 교과전형에서 내신등급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교과전형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면접의 확대, 수능최저학력기준요건 강화, 서류평가 도입 등) • 기존에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A, B, C)만 병기되어 이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2028부터는 융합선택과목(사회·과학)을 제외한 보통교과의 평가결과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함께 기재됩니다. 절대평가(A~E)가 어떻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합전형 포함) | 2 |
| 수시-종합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에서 1-2등급대 학생들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소위 수도권 주요대학 쓸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류 평가의 요소와 평가방법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선택과목의 이수여부, 비교과활동, 교과 중요성 확대 등) • 내신등급에 비해 생기부 기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수록, 기록하는 교사의 역량(또는 학교의 환경)에 따라 지역별/학교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목별로 학년 단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이하 세특)이 많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는 학기 단위 세특이 늘어나 세특의 글자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평가방식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023.6.21.)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별 학습내용·평가방법 등을 대학에 추가 제공' 하고, 2028대입 개편안에선 '교사 평가역량 강화 및 논·서술형 내신평가의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선진적 대입기반구축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대입부터 생활기록부 양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과목별 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이 제공된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4 |

| 영역 | 질문 내용 | 문항수 |
|---------|--|-----|
| 수시-논술전형 | • 교과와 종합전형에서의 변별의 어려움으로 논술전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확대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1 |
| 정시-수능전형 | • 대부분의 대학에서 현재 학과의 계열을 구분하여 수능점수 반영 비율을 달리하거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2028 대입 정시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통합수능에 따른 국어, 수학,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반영비율 등) | 1 |
| 종합의견 | • 2028 대입개편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 | 1 |

두 심층 면담 질문은 모두 개방형으로 작성하였으며, 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면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강조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기 위해 면담 노트를 활용하여 면담 기록을 보완하였다.

다) 자료 분석

입학사정관들과의 면담 내용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고, 이를 모두 전사하였다. 심층면담을 하지 못한 1명의 입학사정관은 답변해 준 내용을 토대로 전사한 자료들과 함께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본래 Glaser와 Strauss(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에서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질적 자료 분석법으로 소개되었으나,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질적 자료 분석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유기웅 외, 2012).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는 <표 I-7>와 같다.

<표 I-7>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

| | |
|-------|---|
| 범주 확인 | 구성된 범주를 코딩 전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범주 확인 및 수정 반복적 비교 ⇄ 연역적 과정 |
| 범주화 | 코딩된 자료를 범주 및 하위 속성으로 분류 반복적 비교 ⇄ 귀납적 과정 |
| 개방 코딩 | 연구 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표시 및 이름 부여 |

(유기웅 외, 2012)

먼저 ‘개방 코딩’ 단계에서 심층 면담 전사본과 심층면담을 하지 못한 입학사정관 1명의 답변지를 여러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표시하고 이름을 붙였다. 그 후 코딩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비슷한 맥락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파악하고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범주화 작업은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 자료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위 범주로 구성하여 각 질문문항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귀납적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범주 확인’ 단계에서는 범주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개방 코딩 전 단계의 원 자료와 비교하면서 연역적으로 확인하여 입학사정관들의 답변 내용과 맥락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확인 및 수정작업을 거쳤다.



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2. 입시정책의 변화 방향



이론적 배경

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2023년 12월 27일 교육부는 2023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023년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수렴을 요청하여 시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였으며, 이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고교 내신과 수능시험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를 폐지했다. 특히,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은 수능에 미포함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2028 대입제도 수능 개편 확정안

| 영역 | 현행 (~2027 수능) | 개편안 (2028 수능~) |
|----|---|----------------------------|
| 국어 | 공통 + 2과목 중 택 1 • 공통 : 독서, 문학 • 선택 :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
| 수학 | 공통 + 3과목 중 택 1 • 공통 : 수학 I, 수학 II •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공통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

| 영역 | | 현행 (~2027 수능) | 개편안 (2028 수능~) |
|------------|-------|--|--|
| 영어 | | 공통 (영어 I, 영어 II) | 공통 (영어 I, 영어 II) |
| 한국사 | | 공통 (한국사) | 공통 (한국사) |
| | | 17과목 중 최대 택 2 •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과학 : 8과목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 • 사회 : 공통 (통합사회) • 과학 : 공통 (통합과학) |
| 탐구 | 사회·과학 | 1과목 : 5과목 중 택 1 2과목 : 공통 + [1과목] •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
| | 직업 | 9과목 중 택 1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 9과목 중 택 1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
| 제2 외국어 /한문 | | | |

(교육부, 2023)

기존 개별과목에 한정된 평가에서 사회·과학의 전반을 다루는 융합평가로 개선하여 현재 수험생들이 사회·과학 탐구영역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 것과 달리 2028학년도부터는 탐구 영역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모두 똑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그리고 선택 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은 고2, 고3 때 배우지만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점이 다르다.

나. 고교 내신체제 개편 및 평가 방법의 변화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 대신 해외 주요국과 같은 5등급제로 개편했으며 등급의 구간은 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 90%), 5등급(10%, 누적100%)이다. 그리고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절대 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체육·예술·교양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미기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대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학습의 대표교과인 사회·과학 융합선택 활성화를 통해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석차등급이 미기재되는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과정 개정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협업을 통해 보완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였다. 한편,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인 5지 선다형 평가는 가급적 지양하며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연수를 집중실시하며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수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관련 자료를 보급하고 절대평가를 내실화한다고 하였다. (교육부,2023)

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이후 교육부의 향후 추진 방향

교육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생과 학부모,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준비 및 지원을 위해 가짜뉴스·불안 마케팅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2028 수능 개편에 따른 예시문항을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교육부,2023) 그리고 고등교육법 개정 및 교육과정 개정시 보완방법을 협의하여 수능관리규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대학의 벽 허물기(학생 중심의 전공체계),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 대학 혁신의 흐름에 맞춘 대입 개선 논의를 위해 대학이 주도하는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를 운영하여 협의회가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지원하고, 대입 개선을 위한 논의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 수립의 과정에서도 대학입시제도 논의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교사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논·서술형 내신평가의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선진적 대입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2. 입시정책의 변화 방향

2024년 현재 입시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발표된 것인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학입시제도의 방향을 예측해야 지속가능하고 연계성 있는 진로진학교육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출범 2주년을 맞아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교위의 계획안에는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안)

| | |
|---------------------------------------|---|
| (1) 양질의 출발선 보장, 안심하고 키우는 교육 | ① 학령인구 감소 시대, 양질의 영유아 교육 출발선 보장 ②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늘봄학교 안착 ③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세심한 교육복지 실현 |
| (2) 깨어있는 교실, 성장과 인성 중심의 살아있는 공교육 | ④ 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⑤ 학생 성장·역량 중심으로의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 ⑥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정책 ⑦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와 인성 교육의 실현 |
| (3) 역동적인 대학,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 ⑧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체제의 전면적 재구조화 및 정부투자 확대 ⑨ 세계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실현 및 학문 생태계 조성 |
| (4) 지속적인 도전, 삶의 역량을 키우는 직업·평생교육 | ⑩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보장 ⑪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 교육의 강화 |
| (5) 탄탄한 교육 기반, 미래 혁신을 뒷받침하는 교육 여건 | ⑫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기반 마련 |
| 〈사회적 과제〉 | (+ ①) 사회적 핵심 기초한 교육 난제 해결 |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2024)

이와 관련하여 ‘수능 I’과 ‘수능 II’로 분리하는 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 대학 학생 선발 자율성 확대, 전국 고교 외부기관 평가 지필고사 시행, 9월 학기제 등 전문위원회 차원의 자문의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교위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개선 방안은 큰 방향성을 설정한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국가교육위원회, 2024)

한편, 이러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계획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미래 10년의 교육 방향을 결정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지난 7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5가지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 내용 중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평가·5지선다형 문제풀이 위주의 대입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와 5지선다형 출제는 내신과 수능에서 학생의 능력을 정량화해 줄 세우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평가와 5지선다형 수능 출제는 대학에서의 학습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을 EBS 교재 문제풀이 수준으로 약화시켰고 사교육의존도를 강화시켜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예정이던 고교내신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로 전환하여 5지선다형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취평가를 확대 도입한 2029 대입제도안을 시급히 논의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위헌적 교육불평등을 유발하는 초·중·고 학교체제 개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계층간 교육격차를 심화하는 대입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31조 제⑥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배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유형 존폐지 관행을 종식하고 일반 학교들 내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별도의 고교유형을 두지 않아도 어느 학교든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교위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지원, 지역 기관·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고교학점제 내실화 계획·발전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대학서열을 해소할 고등교육 상향평준화 정책 및 대입보장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쟁적 대입제도, 고교서열화, 사교육비 상승, 책임교육 약화가 발생하는

근본적 배경에는 만연한 학력·학별 차별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문제가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진로 고민 후 진행된 대학 진학과 이후 성과보다는 어떤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풍조는 고등교육의 부실을 방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런 학습부담은 고등학교 이하 단위로 전가돼 경쟁압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 사이의 교부금 격차를 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른 재정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상향평준화와 함께 대입제도의 연동을 주장하였다.

한편 국교위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의 발표 이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수능과 논술을 병행하는 방안은 죽음의 트라이앵글 부활과 다름없으므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혼란의 입시정책 변화의 방향 속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성장과 역량 중심의 대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이다. 실제로 2024년 1월 국교위 위원장의 신년 특별 인터뷰에서 “수능을 논·서술형 시험으로 개편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세워놓고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안이한 접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028학년도 대입 이후면 2031년 또는 2032년이 되는데 대입 4년 예고제를 감안하면 그리 멀지 않으며 이 시기의 대입제도는 지금까지의 틀을 탈피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도입되기 때문에 단순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수업으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등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이 달라지려면 내신 평가나 대입 수능도 5지선다형이 아닌 논·서술형으로 개편해야 하며, 수십만 명이 치르는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바꾸려면 채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지만 방향을 먼저 세우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9월 26일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지원하고 대입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 14개, 통합과학 12개의 예시문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총 26개의 예시 문항이 아닌 실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문항은 현재 중3이 고3이 되는 2027년 6월에 치러지는 2028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때 처음 공개되며,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안내 등도 아직 미정이며,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 발표 시 안내된다고 하였다.

교육부가 소개한 ‘통합사회’의 예시 문항은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고,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 기술과 관련한 실제 맥락에 적용·탐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소개하였는데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근거해 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과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과학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소개하였다. 교육부는 개편 취지가 사회·과학의 기초 학습 강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버리는 과목을 없애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교육과정에 충실하면 학습량과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예시 문항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입시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단원이 융합되어 출제되면 문제 난도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아도 한 영역이라도 모를 경우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순 개념형 문항보다는 자료 해석형과 추론형 문항은 인문계열 학생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심화 개념이 들어간 문항이 출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2, 고3 학생들이 특정 선택과목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으며, 이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듣도록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통합과학’의 경우, 교과서에 기반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입장과 또 다른 입장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에 대한 것이다.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위해 다시 고1 때 배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복습해야하기 때문에 학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고2, 고3 때 ‘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와 관련된 선택과목을 배우면 ‘통합사회’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물리적으로 4가지 영역을 모두 선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합과학’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따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학교가 고3을 위해 다른 과목을 개설하고 그 시간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교육과정 파행이 만연할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대학 입시의 변화는 교육 현장에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각자의 입장 차이도 다르며 같은 현상을 보는 시각 또한 다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진로진학교육이 학생의 성장과 역량 중심의 대학입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안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III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의 인식 분석

1. 학부모(중학교) 인식 분석
2. 교원(고등학교) 인식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의 인식 분석

1. 학부모(중학교) 인식 분석

가. 내신 개편과 수능 개편에 대한 학부모 인식

〈표 III-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관련 학부모 인식

6. 2028 대입 개편안의 내용 중 가장 찬성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 2개까지 선택)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통합형 수능 | 222 | 41.4 |
| 2 | 내신 과목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성적 병기 | 189 | 35.3 |
| 3 | 수능에서 심화 수학(미적분Ⅱ, 기하)제외 | 187 | 34.9 |
| 4 |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의 개편 | 174 | 32.5 |
| 5 | 사회/과학 탐구 선택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출제 | 134 | 25.0 |
| 6 | 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 94 | 17.5 |
| 7 | 내신에서의 논/서술형 평가 확대 | 48 | 9.0 |
| 8 | 찬성하는 부분 없음 | 20 | 4.4 |
| 합계 | | 1,068 | 200 |

〈표 III-1〉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내용 중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 수능(41.4%)’에 가장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능에서 심화 수학(미적 분Ⅱ, 기하) 제외(34.9%)’, ‘사회/과학 탐구 선택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출제(25.0%)’에 찬성한 비율을 더하면 수능 개편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1.3%로 전체 응답 비율의 절반이 넘는다. 반면, 내신 개편에 찬성한 비율은 총 76.7%('내신 과목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성적 병기(35.3%)',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의 개편(32.4%)', '내신에서의 논/서술형 평가 확대(9.0%)')에 불과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내신 개편보다 수능 개편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2〉 학부모의 내신 변화에 대한 인식

| 7-1.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내신 관련 가장 우려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1 | 상대평가 유지로 인한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의존도 증가 | 272 | 50.7 |
| 2 | 내신 5등급제로 인한 상위권 변별력 약화 | 132 | 24.6 |
| 3 | 생기부(비교과 활동) 기록 관리 부담 증가 | 128 | 23.9 |
| 4 | 무응답 | 4 | 0.8 |
| 합계 | | 536 | 100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우려를 내신, 수능, 교육과정 및 학교 대응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III-2〉에 따르면, 내신 개편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상대평가 유지로 인한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의존도 증가(50.7%)’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생기부(비교과 활동) 기록 관리 부담 증가(23.9%)’로 답한 비율까지 더하면 총 74.6%로, 결국 학부모들은 내신 개편으로 인해 자녀의 학업 부담이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표 III-3〉 학부모의 수능 변화에 대한 인식

| 7-2.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수능 관련 가장 우려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1 | 통합형 수능으로 인한 학업 부담 증가 | 294 | 54.9 |
| 2 | 통합형 수능으로 인한 문/이과 획일화 및 문과 학생들의 불리 증가 | 160 | 29.9 |
| 3 | 수능에서 심화 수학제외로 인한 상위권 변별력 문제 | 82 | 15.2 |
| 합계 | | 536 | 100 |

〈표 III-3〉에 따르면, 수능 개편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통합형 수능으로 인한 학업 부담 증가(54.9%)’로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 〈표 III-2〉와 〈표 III-3〉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부모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내신과 수능에서의 변화로 인해 자녀의 학업 부담이 증가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학부모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대응에 대한 인식

7-3.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대응 관련 가장 우려되시는 점은 무엇입니다?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고교학점제 실효성 감소(절대평가 과목 선택 쓸림 현상에 따른 선택과목 개설 다양성 축소) | 187 | 34.9 |
| 2 | 학교 및 교사의 역량 차이로 인한 학교 유형별 격차 심화 | 148 | 27.6 |
| 3 | 수능 중심 과목으로의 학교 수업 패행 운영 | 79 | 14.7 |
| 4 | 새 제도에 맞춘 교사의 진로진학지도 역량 부족 | 62 | 11.6 |
| 5 | 학교, 교육청의 대응 준비 및 역량 부족 | 60 | 11.2 |
| 합계 | | 536 | 100 |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대응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 실효성 감소(34.9%)’와 ‘학교 유형별 격차 심화(27.6%)’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표 III-4〉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교 유형별 격차로 인한 자녀의 대입 유/불리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학부모들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자녀의 학업 부담 증가, 학교 교육과정 변화, 그리고 학교 유형 간 격차 심화로 인한 자녀의 대학 진학 유/불리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나. 자녀의 진로 진학지도 계획 및 중점 고려 사항

〈표 III-5〉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자녀 진로진학 계획의 변화

8.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자녀의 진로 혹은 진학 계획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있다 | 299 | 55.8 |
| 2 | 없다 | 237 | 44.2 |
| 합계 | | 536 | 100 |

〈표 III-6〉 자녀의 진로진학 계획 변경 시 주요 고려사항

8-1.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없다 | 240 | 44.8 |
| 2 | 사교육 도입 및 확대 고민 | 124 | 23.1 |
| 3 | 대입 지원 전략 변경 | 94 | 17.5 |
| 4 | 선호 고교 유형 변경 | 73 | 13.6 |
| 5 | 기타 | 5 | 1 |
| 합계 | | 536 | 100 |

〈표 III-5〉를 보면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자녀의 진로 혹은 진학 계획에 변화가 ‘있다(55.8%)’라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 이상이다. 또한 〈표 III-6〉에서처럼 ‘사교육 도입 및 확대 고민(23.1%)’, ‘대입 지원 전략 변경(17.5%)’, ‘선호 고교 유형 변경(13.6%)’ 순으로 계획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7〉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대비 학습자의 주요 고려사항

9. 2028 대입 개편안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내신 성적 관리 | 253 | 47.2 |
| 2 | 수능 대비 | 94 | 17.5 |
| 3 | 입시 정보 수집 및 분석 | 75 | 14 |
| 4 | 비교과 활동 참여를 통한 생기부 기록 관리 | 62 | 11.6 |
| 5 | 전문 상담 및 컨설팅 | 45 | 8.4 |
| 6 | 기타 | 7 | 1.3 |
| 합계 | | 536 | 100 |

〈표 III-7〉에서 학부모들은 2028 대입 개편안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이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로 ‘내신 성적 관리(47.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비교과 활동 참여를

통한 생기부 기록 관리(11.6%)’를 선택한 비율을 포함하면, 내신 성적과 생기부 관리를 중점 요소로 선택한 비율은 총 58.8%이다. 이는 ‘수능 대비(17.5%)’를 선택한 비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중학교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 진학지도 관련 수능보다는 내신의 중요성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8〉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선호 고교유형

| 10.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선호하는 고교 유형(혹은 학업 유형)이 있습니까? |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일반고 | 330 | 61.6 | |
| 2 | 특목고, 자사고 | 153 | 28.5 | |
| 3 | 특성화고, 대안학교 | 43 | 8.0 | |
| 4 | 기타(검정고시, 미정 등) | 10 | 1.9 | |
| 합계 | | 536 | 100 | |

〈표 III-8〉처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중학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고교 유형은 ‘일반고(61.6%)’가 1순위였고, ‘특목고, 자사고(28.5%)’가 뒤를 이었다.

〈표 III-9〉 고교 선택 시 주요 기준

| 11. 2028 대입 개편으로 고교 선택 시 가장 고려하게 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학생 수, 시험 난이도 등 내신 유/불리 | 201 | 37.5 | |
| 2 | 학교의 교육과정 | 148 | 27.6 | |
| 3 | 학교의 생기부 관리(비교과 활동) 및 기록 역량 | 95 | 17.7 | |
| 4 | 학교의 수능성적 관리 역량 | 90 | 16.8 | |
| 5 | 기타 | 2 | 0.4 | |
| 합계 | | 536 | 100 | |

또한 〈표 III-9〉에서 보면 자녀의 고교 선택 시에는 ‘학생 수, 시험 난이도 등 내신 유/불리(37.5%)’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10〉 고교 선택 시 주요 기준(특목고, 자사고 선호 학부모 대상)

* '특목고, 자사고' 선호 학부모 대상 응답 결과
2028 대입 개편으로 고교 선택 시 가장 고려하게 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학교의 교육과정 | 36 | 33.3 |
| 2 | 학교의 생기부 관리(비교과 활동) 및 기록 역량 | 28 | 25.9 |
| 3 | 학교의 수능성적 관리 역량 | 22 | 20.4 |
| 4 | 학생 수, 시험 난이도 등 내신 유/불리 | 22 | 20.4 |
| 합계 | | 108 | 100 |

반면에 특목고, 자사고를 선호하는 학부모(108명) 대상 설문 결과에서는 〈표 III-10〉처럼 '학생 수, 시험 난이도 등 내신 유/불리(20.4%)'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오히려 가장 낮아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고 선호 학부모나 특목고, 자사고 선호 학부모 모두 '학교의 수능성적 관리 역량'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 선택 시 공통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의 생기부 관리(비교과 활동) 및 기록 역량'이다. 다시 말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내신 성적 및 생기부 관리 역량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학부모 요구 사항

〈표 III-11〉 자녀의 사교육 이용 현황

12. 자녀의 사교육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학원 | 392 | 72.9 |
| 2 | 인터넷 강의 | 142 | 26.5 |
| 3 | 개인 및 소그룹 과외 | 89 | 16.6 |
| 4 | 사교육을 받지 않음 | 87 | 16.2 |
| 5 | 기타 | 5 | 1.0 |
| 합계 | | 715 | 133.2 |

<표 III-11>에서 현재 자녀의 사교육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원(72.9%)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인터넷 강의(26.5%)가 뒤를 이었다.

<표 III-1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대비 사교육 의존도에 대한 인식

| 13. 2028 대입 개편 대비에 있어 사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1 | 도움 | 276 | 51.5 |
| 2 | 매우 도움 | 194 | 36.2 |
| 3 | 도움 안 됨 | 44 | 8.2 |
| 4 | 매우 도움 안 됨 | 15 | 2.8 |
| 5 | 잘 모르겠음 | 7 | 1.3 |
| 합계 | | 536 | 100 |

또한 <표 III-12>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대비 사교육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는 비율은 ‘도움(51.5%)’, ‘매우 도움(36.2%)’이 총 87.7%로 대다수 학부모가 앞으로 사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표 III-1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대비 사교육에 대한 기대 효과

| 13-1. 2028 대입 개편 대비로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서입니다?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1 | 수준 맞춤형 개별 학습 지도를 통한 학업 향상 | 306 | 57.1 |
| 2 | 최신 입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진학 지도 | 117 | 21.8 |
| 3 | 대입에 필요한 특별활동 및 스펙 관리 팁 제공 | 70 | 13.1 |
| 4 | 도움 안 됨 | 37 | 6.9 |
| 5 | 기타 | 6 | 1.1 |
| 합계 | | 536 | 100 |

<표 III-13>에 따르면 세부적으로는 사교육이 ‘수준 맞춤형 개별 학습 지도를 통한 학업 향상(57.1%)’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최신 입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진학지도(21.8%)’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III-14〉 사교육 대비 공교육에 대한 인식

| 13-2. 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공교육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1 | 교사 1인당 지도 학생 수 과다로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도 어려움 | 235 | 43.8 |
| 2 | 사교육에 비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진로 진학 지도 역량 | 179 | 33.4 |
| 3 | 최신 입시정보의 수집 및 전문적 분석 능력 부족 | 55 | 10.3 |
| 4 | 학부모 상담 및 연수 등 정보 제공 및 공유 부족 | 28 | 5.2 |
| 5 | 부족하지 않음 | 27 | 5.0 |
| 6 | 기타 | 12 | 2.3 |
| 합계 | | 536 | 100 |

〈표 III-14〉에서 사교육 대비 공교육의 부족한 점으로는 ‘교사 1인당 지도 학생 수 과다로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도 어려움(43.8%)’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교육에 비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진로진학지도 역량(33.4%)’이 뒤를 이었다. 결론적으로 학부모가 사교육 대비 공교육에 바라는 점으로 학생 맞춤형 개별 학습 지도와 대입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탄력적인 진로진학지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표 III-15〉 자녀의 대입 준비 관련 고등학교에 대한 요구 사항

| 14. 자녀의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고등학교에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1 |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절, 수행평가 비율 관리 등 내신을 위한 평가 관리 | 243 | 45.3 |
| 2 | 교과 활동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생기부(비교과 활동) 기록 관리 | 128 | 23.9 |
| 3 | 모의고사 해설 등 수능시험 성적 관리 위주의 교과 수업 | 95 | 17.7 |
| 4 | 진로 진학 상담 등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 | 59 | 11.0 |
| 5 | 학교 밖 교육과정 안내 및 관리 | 9 | 1.7 |
| 6 | 기타 | 2 | 0.4 |
| 합계 | | 536 | 100 |

<표 III-15>를 보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절, 수행평가 비율 관리 등 내신을 위한 평가 관리(45.3%)’가 잘 이루어지기를 가장 희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과 활동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생기부(비교과 활동) 기록 관리(24.9%)’에 대한 바람이 컸는데 이전 설문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대입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내신 성적 및 생기부 관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16〉 자녀의 대입 준비 관련 교육청에 대한 요구 사항

| 15. 자녀의 대입 준비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1 | 다양한 진로 진학 관련 프로그램 기획, 운영 | 154 | 28.7 |
| 2 | 최신 입시정보의 신속한 제공 | 139 | 25.9 |
| 3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입시 교육 및 대입 설명회 | 129 | 24.1 |
| 4 | 학교-교육청-학부모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학부모 의견 수렴 | 66 | 12.3 |
| 5 | 입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학생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44 | 8.2 |
| 6 | 기타 | 4 | 0.8 |
| 합계 | | 536 | 100 |

<표 III-16>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에 바라는 점에 대해 ‘다양한 진로 진학 관련 프로그램 기획, 운영(28.7%)’, ‘최신 입시정보의 신속한 제공(25.9%)’,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입시 교육 및 대입 설명회(24.1%)’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자녀들이 다양한 진로 진학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희망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로 진학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17〉 자녀의 대입 준비 관련 추가적 지원 요구 사항

| 16. 자녀의 대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1 |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서비스 제공 | 198 | 36.9 |
| 2 | 학습전략, 학습 동기부여 등 자기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 133 | 24.8 |

16. 자녀의 대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3 |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전공 체험 등의 강화 | 91 | 17.0 |
| 4 | 더 많은 입시 정보 및 합격사례 분석 제공 | 57 | 10.6 |
| 5 | 학습관리 프로그램(방과후 수업, 보충수업 등) 제공 | 41 | 7.6 |
| 6 | 심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 13 | 2.4 |
| 7 | 기타 | 3 | 0.7 |
| 합계 | | 536 | 100 |

<표 III-17>를 보면 자녀의 대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서비스 제공(36.9%)’과 ‘학습전략, 학습 동기부여 등 자기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24.8%)’ 순으로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에 바라는 가장 높은 요구 사항은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진학 진로 지도’ 및 ‘학습관리’라고 요약할 수 있다.

라. 학부모(중학교) 인식 종합 분석 및 시사점

현재 인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536명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학부모들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서 특히 내신 개편으로 인한 변화에 높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가져올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 진학 관련 정보를 얻기 희망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과 생기부 관리뿐만 아니라 개별 학습 코칭, 진로 체험 활동 기회 제공, 맞춤형 진로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학부모의 자녀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대학-교육청 연계 수시 정시 박람회와 전문대 박람회, 전공설명회(전공 체험), 모의 면접 전형을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진로 진학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실을 상설(월~토) 운영 중이며 매년 1,5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중학교 학부모들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이해를 돋구자 2024년 3월과 4월에 총 6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미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 총 2,000 명 이상의 중학교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관내 중학교 대상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를 통해서도 2028 대학입시제도 주요 사항과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 중이다. 이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진학프로그램은 언론보도, 교육청 SNS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전자문서(공문을 통한 가정통신문),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중인 상황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최신 진로·진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기대와 요구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다각도에서 심층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시 진로 체험이나 설명회 참여를 통한 진로 설계 방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야 할 것이다.

2. 교원(고등학교) 인식 분석

가. 내신, 수능,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에 대한 교사 인식

〈표 III-18〉 교사의 내신 영역 관련 인식

6-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내신 영역 관련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내신 변별력 약화로 인한 수능 중요도 확대 | 92 | 42 |
| 2 | 내신 변별력 약화로 인한 생기부 정성평가 중요도 확대 | 53 | 24.2 |
| 3 | 교사의 평가 공정성 및 난이도 조절 부담감 증가 | 31 | 14.2 |
| 4 | 내신 1등급대 진입을 위한 학생의 학업 부담감 증가 | 23 | 10.5 |
| 5 | 내신 경쟁력 완화로 인한 학생의 학업부담 감소 | 16 | 7.3 |
| 6 | 기타 | 4 | 1.8 |
| 합계 | | 219 | 100 |
| 기타 의견 | 고교 정상화 축소-대입제도에 변화가 없기에, 내신 변별력 약화로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 증대, 내신 수능 모두 학업 부담 증가, 탐구과목 수업 내실화 어려움, 융합 선택 과목의 쏠림 현상 | | |

<표 III-18>에서 신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내신 변별력 약화로 수능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42%)이 가장 많았으며 내신 학업 부담과 관련하여 학생의 학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7.3%)보다 학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는 교사(10.5%)들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새로운 대입 정책의 내신 관련 개정이 일부 학생들에게는 내신에의 학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여전히 내신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고 이와 더불어 수능에 대한 부담까지 증가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학생의 학업 부담 증가에 따라 교사들도 내신 평가의 공정성 및 난이도 조절에 대해 부담감이 증가할 수 있음을(14.2%) 의미한다.

〈표 III-19〉 교사의 수능 영역 관련 변화 인식

6-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수능 영역 관련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통합형 수능 대비에 따른 2,3학년 탐구 선택 과목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 147 | 67.1 |
| 2 | 수능 선택과목 폐지로 인한 학업 부담 증가 | 39 | 17.8 |
| 3 | 수능 선택과목 폐지로 인한 학업 부담 감소 | 30 | 13.7 |
| 4 | 기타 | 3 | 1.4 |
| 합계 | | 219 | 100 |
| 기타 의견 | 수능 변별력 약화로 내신 부담 증가, 내신 변별력 약화로 생기부 기록 등 교사 업무 가중, 학업부담 감소 여파로 인한 기본 교육의 질 저하 | | |

<표 III-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능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통합형 수능으로 인한 탐구과목 대비를 위해 탐구선택과목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예상하는 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67.1%), 학생의 학업 부담 감소보다는 학업 부담 증가를 예측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이는 6-1에서 내신에 대한 학생의 학업부담감 증가(10.5%)가 학업부담 감소(7.3%)보다 높았던 것에 비추어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탐구 과목 교사(사회, 과학, 한국사) 응답자 77명 중에서는 파행 운영에 응답한 교사는 54명(70.12%), 수능 선택 과목 폐지로 인한 학업 부담 증가 14명(18.18%), 수능 선택 과목 폐지로 인한 학업 부담 감소 6명(7.79%) 이었다.

〈표 III-20〉 교사의 수업 및 고교 영역 관련 인식

6-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수업 및 고교 영역 관련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개설 과목별 교사 수급 문제 심화 | 120 | 54.8 |
| 2 | 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선택 과목의 다양성 축소 | 116 | 53 |
| 3 | 사교육 의존도 증가 | 64 | 29.2 |
| 4 | 특정유형 고교 선호도 증가 | 59 | 26.9 |
| 5 |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중요도 확대 | 32 | 14.6 |
| 6 | 수업 방식의 변화로 학생의 다양한 역량 강화 | 20 | 9.1 |
| 7 |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 가능 | 17 | 7.8 |
| 8 | 3학년 2학기 학교 수업 정상화 | 3 | 1.4 |
| 9 | 기타 | 7 | 3.2 |
| 합계 | | 438 | 200 |
| 기타 의견 | 수업 방식의 변화로 학생의 다양한 역량 강화 및 전인 교육, 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선택 과목의 다양성 축소, 고교학점제와 대치되는 수능 변화로 인해 고교 현장의 혼란 가중, 세분화되어 있는 선택과목을 어떻게 통합하여 수업할 지 모르겠음. | | |

〈표 III-20〉처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로 교사 수급 문제 심화(54.8%), 선택과목의 다양성 축소를 선택한 응답자는 과반(53%)을 넘었으며 사교육 의존도 증가도 29.2%를 차지하여 학생의 역량 강화(9.1%), 맞춤형 학업 설계 (7.8%), 3학년 2학기 수업 정상화(1.4%) 등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더 많았다. 이는 5번 문항 응답자의 66.6%가 부정적, 21.5%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당면한 교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개설 과목별 교사 수급 문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이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소인수 과목 담당 교사 수급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선택 과목의 다양성 축소와 관련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9개의 융합선택과목에의 쏠림 현상으로 발생하게 될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일 것으로 여겨진다.

나. 수업, 평가에서의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교사 인식

〈표 III-21〉 교사의 선호 고교 유형에 대한 인식 (1)

7.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가장 선호도가 높아질 고교 유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 171 | 78.1 |
| 2 | 일반고 | 42 | 19.2 |
| 3 | 특성화고 | 3 | 1.4 |
| 4 | 기타학교(대안학교 등) | 0 | 0 |
| 5 | 기타 | 3 | 1.3 |
| 합계 | | 219 | 100 |
| 기타 의견 | 특목고는 선호도가 유지될 것이지만, 표준편차 제공을 하지 않아 자사고 선호도는 떨어질 것이다, 잘 모르겠다 | | |

〈표 III-21〉에 따르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선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교 유형은 특목고 및 자사고, 일반고 순이었다. 특목고 및 자사고와 일반고 선호의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목고 및 자사고와 일반고 선택 이유를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표 III-22〉 교사의 선호 고교 유형에 대한 인식 (2)

7-1. 위(7번) 답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특목고 선택자 172명 | | | | 일반고 선택자 42명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1 | 갱기부 관리(비교과 기록) 유리 | 84 | 48.83 | 1 | 내신 등급 유리 | 34 | 80.95 |
| 2 | 수능 대비 유리 | 63 | 36.62 | 2 | 생기부 관리(비교과 기록) 유리 | 8 | 19.05 |
| 3 | 내신 등급 유리 | 17 | 9.88 | 3 | 수능 대비 유리 | 0 | 0 |
| 4 | 입시지도 역량 우수 | 6 | 3.48 | | 입시지도 역량 우수 | 0 | 0 |
| 5 | 기타 | 2 | 1.19 | | 기타 | 0 | 0 |
| 합계 | | 172 | 100 | 합계 | | 42 | 100 |

<표 III-22>에서 특목고, 자사고가 선호될 것이라는 응답 중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생기부 관리(비교과) 유리, 수능대비 유리, 내신 유리, 입시지도역량 우수 순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모두 해당 1명, 변화 없을 것 같다 1명이었다. 이는 특목고, 자사고가 특히 생기부 관리와 수능 대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으며, 특목고가 입시 준비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목고, 자사고가 입시지도 역량이나 내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일반고가 선호될 것이라는 응답 중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신 유리, 생기부 관리(비교과 기록) 유리 순이었다. 일반고를 선호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내신 등급에서 유리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는 일반고가 내신 성적 관리에 있어 더 유리한 환경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일반고가 수능 대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없었다. 설문 전반에 걸친 수능의 중요도가 높아질 거라는 인식과 관련하여 일반고에서의 수능 대비는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가장 중요해질 영역으로 수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내신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보다 수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입시에서 내신은 가장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전제로 수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중요한 변화로 예측하기 때문이었다.

.... 수능이라 생각합니다. 내신이나 생기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편에 따라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낄 변화 및 준비가 더 필요해지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수능을 선택하였습니다.....상위권, 하위권 대학의 상황에 따라 수능 활용에 대한 필요는 다르겠지만 수능을 활용하지 않던 대학에서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크게 느껴질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 D고등학교 K교사

대입제도가 바뀌더라도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과 수능이 아닐까요. 내신의 중요성은 너무 기본적이라 수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신 5등급제로 바뀌고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극상위권의 학교들은 내신으로 우수 학생을 변별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학업 역량의 변별을 수능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S고등학교 S교사

수능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수능 관련 개편 내용에 대한 생각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내용 중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에 가장 파행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피면담자 모두 통합형 수능을 꼽았다.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과학의 모든 과목을 I, II 수준으로 대비해야 하는 등 과중한 학업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능 개편에 따라 오히려 교육 과정의 파행과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커질 거로 생각합니다. 선택이 없어진 통합형 수능에서는 변별을 위해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또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출제는 사회, 과학 과목의 수업 운영에 파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수능이 대학 학부 과정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을 측정한다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점수로 줄 세워 우수한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모든 시험의 목적을 ‘우수한 학생의 변별’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개편된 입시에서 수능 문제의 난이도는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 D고등학교 K교사

통합형으로 바뀐 수능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과학, 통합사회 출제는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과학의 예를 들면,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에서 가르치는 통합적 내용이어도 지구과학에 중점을 두어 설명할 것인가, 생명과학에 중점을 두어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 내용의 방향과 수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통합과학이라도 각 과목의 I과 II 수준의 내용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를 어디에 초점을 두어 낼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학과목 모두 I, II 수준까지 전부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모든 과학과목, 사회과목을 개설하거나, 수강할 수 없는 학교의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 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 S고등학교 S교사

현재 학교에서 수능 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모두 부정적 의견이었다. 학교에서 수능 준비가 과연 가능하냐고 반문하는 교사도 있었다. 키려 문항의 출제,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 수준과 수능에서의 학생의 개별적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학교 교육 과정의 한계와,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종합전형 위주의 대입 준비로 수능에 소홀해 왔던 인천의 전략으로 인한 오랜 수능 소홀의 분위기를 학교에서 수능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생각하였다.

....내신의 경우, 교사가 가르친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고 성적으로 직결되어 수업이 꼭 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지만, 수능의 경우 학생마다 시험 선택 과목(현재), 학습 내용, 학습 전략 등이 다 다른데 이를 일일이 맞춰 줄 수 없는 수업 내용과 수업 진행 방식은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를 별개로 생각하는 큰 이유이며, 이런 생각이 점점 더 학교에서의 수능 준비는 불가능하다는 좌절과 불신을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수능 난이도와 관련하여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킬러 문항의 출제는 학교의 수능 준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사조차도 적정 시간 안에 풀기 어려울 정도로 꼬아져 있는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를 다양한 학업 수준의 학생들을 아우르며 진도 계획까지 맞춰야 하는 수업 시간에 해 주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의 수능 준비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D고등학교 K교사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에 맞춰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업을 제공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인천 대부분의 일반고가 갖고 있는 수능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 무기력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대로 인천은 종합전형에 주력하며 생기부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대입 준비의 분위기로 인해 수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조되기는커녕 무시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가 종합전형에 치우치다 보니 심지어 3학년 2학기 수업이 종합전형 면접 준비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기도 합니다. 수능 준비는 몇몇 극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일, 준비할 필요 없는 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처럼 여겨지는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모의고사나 수능에 진지하게 임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수능에 관심 없으니 학교에서도 수능 준비가 소홀해지고 수능에 소홀한 학교의 분위기가 다시 학생들로 하여금 수능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S고등학교 S교사

학교에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생의 수준별 맞춤형 수능 대비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수능 준비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별 필요와 요구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교육에서도 같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규 수업을 학생의 수능 선택 과목별, 수준별로 개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이나 심화특강반 등의 개설을 통해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려는 노력이 공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 함께 채움

예산 지원으로 무료 방과후수업이 가능했을 때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좋았습니다만 수요자 부담이 되면서 방과후 신청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수능 대비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 높기 때문에 학원보다 저렴한 방과후 수업 비용, 교재 무료 제공 등을 경쟁력 삼아 학교의 수능 준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고등학교 K교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만을 특별히 따로 집중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특강이나 방과후를 열었을 때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특강, 심화수업, 방과후 수업 등의 제공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S고등학교 S교사

학교에서의 수능 대비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 인력 및 예산 등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학교에서 수능 관련 특강이나 수업 개설 시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 관련 학습자료의 제작, 배부도 유용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지역(전라도)에서는 학교가 사설 모의고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외에도 사설학원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꾸준히 점검하고, 수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관리한다고 합니다. 완화된 최저지만 여전히 최저기준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인천의 일반고에서는 제일 부족한 부분이기에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교육청에서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D고등학교 K교사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만이라도 맞춤형 특강이나 방과후수업,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익자부담의 방과후 수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중도 포기자의 환불 등 제반 문제의 처리가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어 교사들로 하여금 방과후 수업의 적극적 개설을 꺼리게 만듭니다. 작년까지 있었던 교육청의 방과후비 예산 지원은 그래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이 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수능 대비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찾고 접할 수 있도록 수능 관련 문제은행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를 교과목별, 교과 단원별, 난이도별로 손쉽게 소트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수업준비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S고등학교 S교사

〈표 III-23〉 교사의 수업 변화에 대한 인식

8.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응하여 수업에서의 변화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하십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수업지도 강화 | 66 | 30.1 |
| 2 | 학생 중심형 토론, 토의 및 프로젝트 수업 확대 | 65 | 29.7 |
| 3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형 수업 | 40 | 18.3 |
| 4 | 변화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 37 | 16.9 |
| 5 | 기타 | 11 | 5 |
| 합계 | | 219 | 100 |
| 기타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편 방향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지도하는 아이들의 좋은 입시 결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생기부가 풍성해 보이도록 만드는 활동을 많이 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임. 많은 학생의 1등급 진입을 위해 선택교과 최소화로 고교학점제에 역행 우려와 통합수능으로 인해 탐구 교과 수업의 파행을 우려함 맡은 과목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업 준비하기에 바빠 다양한 수업 활동 준비가 제한됨 어차피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누어야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학생 중심형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수업시간에는 토론이나 활동 중심을 하면서, 석차 변별을 위해 시험을 봄다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 | |

수업에서의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 〈표 III-23〉을 보면 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수업지도 강화가 응답비율(30.1%)이 가장 높았으며 토론, 토의 및 프로젝트 수업 확대(29.7%)가 뒤를 이었다.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있어서 학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며 토의 및 프로젝트 수업 확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형 수업에 대한 고려(18.3%)의 경우 생기부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결국 기존 입시제도와 다르지 않게 학력과 비교과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16.9%)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변화의 방향성이 명확한 자리 잡지 않았거나, 개편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4〉 교사의 평가 변화에 대한 인식

9.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평가에서의 변화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하십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지필평가의 난이도 조절 | 59 | 26.9 |
| 2 | 창체영역, 교과세특 등 정성적 평가부분(기록) 개선 | 51 | 23.3 |
| 3 | 과정형 수행평가 확대 | 49 | 22.4 |
| 4 |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항 확대 | 31 | 14.2 |
| 5 | 변화를 계획하지 않고 있음 | 26 | 11.9 |
| 6 | 기타 | 3 | 1.3 |
| 합계 | | 219 | 100 |
| 기타 의견 | 대입제도의 변화 촉구, 고교 정상화 촉소 | | |

또한 〈표 III-24〉를 보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평가에서의 변화에 대해 지필평가 난이도 조절(26.9%), 정성적 평가 부분 개선(23.3%), 과정형 수행평가 확대(22.4%), 서술형 평가 확대(1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변화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의 경우 11.9%의 응답률을 보였다. 5등급제로의 개편과 절대평가 성적을 병기하는 것으로 인해 난이도를 쉽게 조절하여 입시에서 유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성적 평가 부분의 개선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기부의 여러 영역에 풍부한 기록을 위함으로 파악된다. 내신 관리와 생기부 관리에 해당되는 항목에서 비슷한 비율로 응답된 것으로 보아 둘의 중요성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다. 학생 진로진학지도 중점사항에 대한 교사 인식

〈표 III-25〉 교사의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10.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대입제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수시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기준 반영 확대 | 170 | 77.5 |
| 2 | 수시 교과 전형에 생기부 정성 평가 반영 확대 | 153 | 69.8 |
| 3 | 수시에 면접 실시 확대 | 125 | 57.1 |
| 4 | 정시에 생기부 종합 평가 반영 확대 | 101 | 46.1 |
| 5 | 수시에 논술전형 확대 | 56 | 25.5 |
| 6 | 정시에 면접 실시 확대 | 46 | 21 |
| 7 | 기타 | 6 | 3 |
| 합계 | | 657 | 300 |

〈표 III-25〉를 보면 2028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해 최저 기준 반영 확대(77.5%), 교과 전형에서 생기부 정성 평가 반영 확대(69.8%), 수시에서 면접 확대(57.1%), 정시에서 생기부 종합 평가 반영 확대(46.1%)등에 대한 예측이 높게 나타났으며 5등급제로 인해 내신의 비중이 약화되고, 수능에 기반한 학력과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적 요소들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반영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6〉 교사의 학생 준비 사항에 대한 인식

1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학생이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수능 대비 | 97 | 44.3 |
| 2 | 생기부 기록(비교과 활동) 관리 | 61 | 27.9 |
| 3 | 내신 성적 관리 | 53 | 24.2 |
| 4 | 기타 | 8 | 3.6 |
| 합계 | | 219 | 100 |
| 기타 의견 |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폐지 (대안)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개설, 대학별 수시와 정시 비중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음, 면접과 논술 교육, 모두 관리해야함(내신, 생기부, 수능), 모두 지금보다 덜 중요할 것 같음, 내신+생기부 기록, 1등급 10% 안에서의 경쟁이므로 수능을 통한 변별이 될 것이고,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 | | |

〈표 III-27〉 교사의 학생 지도 전략에 대한 인식

1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학생 지도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내신 및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학업역량 중점 지도 | 101 | 46.1 |
| 2 | 정확한 입시정보 및 지원 전략 제공 | 45 | 20.5 |
| 3 | 교육과정 이해 및 과목 선택 지도 | 37 | 16.9 |
| 4 | 생기부 관리를 위한 진로 설계 역량 지도 | 33 | 15.1 |
| 5 | 기타 | 3 | 1.4 |
| 합계 | | 219 | 100 |
| 기타 의견 | 학교의 교육 활동은 세분화되는데 대학은 무전공 선발하고있음. 수능, 생기부, 내신 모두 관리 해야 함,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폐지(대안)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개설 | | |

〈표 III-26〉에서처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서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대비라는 응답(44.3%)이 가장 높았으며, 〈표 III-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효과적인 학생 지도 전략으로 내신 및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학업 역량 중점 지도

(46.1%)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표III-18>의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로 수능 중요도 확대라는 응답과, <표III-19>의 학업 부담 증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입시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을 대비한 학업 역량이라고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이 주력해야 할 부분, 수업과 평가에서의 교사의 고려사항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수업과 평가에서 모두 학력 향상을 위한 지도,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과 학생 중심형, 교과 융합형 수업과 창체/교과 영역의 기록(정성적 평가) 개선, 과정형 수행평가 확대 및 과목선택 지도, 생기부 관리를 위한 진로 설계 역량 지도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업 생기부 기록(비교과 활동) 관리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교사 요구 사항

<표 III-28>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한 요구

| 1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1 | 대학별 대입 평가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연수 | 54 | 24.7 |
| 2 | 대입 개편에 따른 대학별 전략 사례 연수 | 49 | 22.4 |
| 3 | 성장중심 및 과정중심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45 | 20.5 |
| 4 | 학생 중심 수업 방식으로의 개선을 위한 연수 | 38 | 17.4 |
| 5 | 진로진학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30 | 13.7 |
| 6 | 기타 | 3 | 1.3 |
| 합계 | | | 219 100 |
| 기타 의견 | 모두 필요, 수능 개편, 대입은 대학에서 책임질 업무, 성장 중심 과정 중심 평가 위해서 대입 제도의 개선이 필요 | | |

<표 III-28>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비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 연수로는 대입 정보 제공 연수(24.7%), 대학별 전략 사례 연수(22.4%), 평가 관련 역량 강화 연수(20.5%), 수업 방식 개선 연수(17.4%), 진로진학 상담 역량 연수(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에 대입 정보 제공 연수를 통해 다양한 대학의 변화된 입학 기준에 대해 최신 정보를 얻고 이를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급격한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학의 입장과 대학별 고유 변경사항을 신속히 업데이트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대학 지원 전략을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기 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연수가 강화되면 교사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입시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입제도 및 대학별 입시정보와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다는 비율(47.1%)에 못지않게 수업과 평가 방식의 개선을 위한 연수(37.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수업 방식과 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며 변경된 제도에 맞는 적절한 수업과 평가 방식의 도입과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생기부의 정성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꾀하고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욕구가 추후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9〉 교사의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요구

14.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순위 | 항목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1 | 다양한 수업 개설과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정원 확대 | 64 | 29.2 |
| 2 |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및 소통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 | 50 | 22.8 |
| 3 | 교사 대상 각종 연수를 통한 학교 현장에서의 대비 지원 | 39 | 17.8 |
| 4 | 학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 28 | 12.8 |
| 5 | 고교-대학-교육부 연계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연구를 통한 현장 밀착형 정보 공유 | 28 | 12.8 |
| 6 | 학교 밖 교육활동(꿈두레, 꿈이음, 글로벌진로과정 등) 지원 확대 | 10 | 4.6 |
| 합계 | | 219 | 100 |

한편 <표 III-29>에서 다양한 수업 개설과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정원 확대 (29.2%)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수업 관련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 교사(고등학교) 인식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교사의 설문 결과에서 수능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내신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 영향이 낮아진다기보다, 기준과 달리 더 중요해질 수능에 강조를 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선호될 학교로 일반고를 선택한 이유가 내신이 유리한 점, 평가의 변화에서 가장 고려하고 있는 것이 지필고사의 난이도 조절인 점, 학생이 가장 주력해야 할 대비로 내신이 생기부 못지않은 비율로 응답된 점을 미루어 보면 여전히 내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수능 다음으로 생기부의 정성 평가와 면접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방식, 학생 중심 수업 방식으로의 변화, 성장 및 과정 중심 평가로의 개선, 교육과정 및 과목 선택 지도를 통한 진로설계 지도 등 생기부의 질적 관리를 위한 수업, 평가, 지도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모습도 수능 대비 학력 지도만큼이나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기부 관리를 통한 종합전형 대비가 우수했던 인천의 특징을 살리면서 장점인 학생부의 질적 관리에 주력하면서 그동안 종합전형 대비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능에서의 개선과 대비를 끌어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대응 전략이 될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학담당 장학사와의 면담에서도 ‘현재 타시도와 차별화된 인천시 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진로·진학 지원 사업(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이것의 성과 또는 한계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천은 학교 교육활동의 다양화와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생의 역량을 적극 기재한 결과 지난 10여년 간 타시도에 비해 수시 생기부위주전형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얻어왔으나 이후 여러 타시도에서 인천의 진학교육 사업을 벤치마킹 하는 등 타시도의 생기부 기재 역량도 신장되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상향평준화되었다. 게다가 최근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평가가 전격 도입되고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천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경쟁력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답하였다. 종합전형에서의 생기부의 경쟁력 제고와 수능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 대비가 교사와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필요성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2028 대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주력하던 진로·진학 지도 정책 및 전략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공·명·정·대’라는 인천만의 대입지도전략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공부 습관 형성을 위한 깊이 있는 수업(학습) 확대, 명확한 대입 전략 수립, 정교한 수능 준비, 대학별 고사 준비를 통해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부담 없이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획하고자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진학 또는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 로드맵’을 보급하였다‘고 답하였다. 결국 대입제도가 변하더라도 내신, 수능,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으며 이를 균형 있게 준비하기 위해 학업 역량과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2028 대학입시제도 대비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진로진학지도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해 인천 중학교 학부모 및 고등학교 교사 인식 조사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변화에 관심과 우려가 있었으나 세부 관심 내용과 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내용을 크게 내신과 수능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를 분석하면 학부모들은 수능보다 내신 개편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훨씬 더 커졌고 특히 내신 성적과 생기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가장 인식이 높았다. 학부모는 개편으로 인해 자녀의 학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자녀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도와 진학 지도가 이뤄지기를 가장 희망했다. 또한 현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가져올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진학할 고등학교 유형의 선택 및 대비 사항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공신력 있는 진학 관련 정보를 얻기를 바라고 있었다.

반면 고등학교 교사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 수능의 중요도가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지필

고사 난이도 조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점과 학생이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사항으로 내신 성적 및 생기부 관리를 선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등학교 교사는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생기부 질적 개선에 주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고등학교 교사는 대입제도 변경과 상관없이 기존의 내신, 생기부, 수능의 큰 축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설계 및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질적 제고의 필요성, 수업과 평가에서의 변화 추구, 교육과정 및 과목 선택 지도를 통한 학생 개인별 진로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질적 관리에 대한 차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대응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질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 시사점

학부모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영역으로 내신 성적 관리(47.2%), 수능 대비(17.6%), 입시 정보 수집 및 분석(13.7%), 비교과 활동을 참여를 통한 생기부 기록 관리(11.6%)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능 대비(44.3%), 생기부 기록(비교과 활동) 관리(27.9%), 내신 성적 관리(24.2%)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모두 내신 성적이든 수능이든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 학부모는 내신 성적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본 반면, 교사는 수능 대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 심층 면담에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데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을 가장 당연한 사항으로 인식하므로 수능 대비의 중요성을 보다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신 성적과 수능 대비라는 학력 향상 문제는 기존 대입 개편안과 상관없이 대입 준비에서 항상 기본적인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차별화를 도출할 수 있는 지점은 생기부 기록 관리이다. 그 근거로 학부모 설문 결과에서 고교 선택 시 학교의 교육과정(27.9%) 및 생기부 관리 기록 역량(17.6%)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목·자사고 진학 희망 학부모 설문 결과에서도 고교 선택 시 학교의 교육과정(33.3%) 및 생기부 관리 기록 역량(25.9%)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생기부 기록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사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교사들도 생기부 정성평가 중요도 확대(24.2%)를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토론 토의 및 프로젝트 수업 확대(29.7%),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융합형 수업(18.3%) 등 수업에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응하여 기준과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생기부 관리이다. 물론 생기부 관리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반으로 인천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시기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배경과 방향성에 맞춰, 학교 주도의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참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자기주도성과 탐구력 신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장 과정과 결과를 생기부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일반 고등학교 생기부 관리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생기부 질적 제고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의 요구 사항인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설계 및 교사 정원 확대 지원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연구

IV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인식 분석

1. 입학사정관 심층면담 결과 분석
2. 요약 및 시사점

IV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인식 분석

1. 입학사정관 심층면담 결과 분석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입학사정관 심층 면담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질문문항과 답변내용을 범주화하여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입학사정관 심층 면담 범주화

| 영역 | 범주 |
|---------|--|
| 기본 문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대학의 준비 상황 • 전형유형별 모집비율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학교유형별 유/불리에 대한 인식 • 수시모집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선택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정성평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
| 수시-교과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 내신과목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따른 절대평가 반영 가능성에 대한 인식 |
| 수시-종합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 •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역 및 학교별 차이에 대한 인식 •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목 증가로 인한 평가방식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 •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과목별 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의 대입자료 추가제공에 대한 인식 |
| 수시-논술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논술전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
| 정시-수능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
| 종합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가. 기본문항 영역

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대학의 준비 상황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대입전형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는 2024년 1월 서울대학교에서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미래대입전형 설계 2024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 포럼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및 대입의 환경 속에서, 창의적 인재 선발이 대학의 교육 목표 구현 및 고교 수업과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학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발표 내용은 ‘학령 인구와 지원·합격자 특성으로 본 변화의 필요성’,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전형 개편 방안’, ‘미래역량기반 창의적 인재선발을 위한 심층 역량평가 면접 설계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전형 개편 방안 발표에서는 수시·정시 전형 설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실질적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중심 평가체제 강화와 창의·융합 역량평가 면접 설계가 강조되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각 대학의 대입전형의 변화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아직 2028대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권장과목 안내 등 올해 연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A

2028 대입개편안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집전형 변화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전입니다. 다만 올해에 국고 예산을 받아서 2028 대입개편안 관련 자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학사정관 C

2024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2028 대입개편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이든 공동이든 해당 국고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2028 대입개편안을 고려한 전형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본교는 아직 심화되지 않았으나, 초기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8대입 1년전인 2027대입부터 일정부분 반영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입학사정관 D

심층 면담을 진행한 모든 대학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입시전형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준비하는 단계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와 연구를 시작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입시전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대학의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부분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전형유형별 모집비율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형유형별 모집비율과 인원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입시전략을 세우고 준비하게 된다. 정시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수시전형 중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내신관리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매년 전형유형별 모집비율은 조금씩 변동이 있으나 큰 틀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경우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시 모집비율이 약 80%, 정시가 20%의 비율을 보인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비율을 보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비율 (단위 : 명)

| 구분 | 전형유형 | 2026학년도(A) | | 2025학년도(B) | | 증감(C) (A)-(B)=(C) | |
|-------|-----------|------------|--------|------------|-------|----------------------|--------|
| | | 모집인원 | 비율 | 모집인원 | 비율 | | |
| 수시 | 학생부위주(교과) | 155,493 | 45.0% | 156,760 | 45.2% | -1,267 | -0.2%p |
| | 학생부위주(종합) | 81,373 | 23.6% | 80,342 | 23.2% | 1,031 | 0.4%p |
| | 논술위주 | 12,559 | 3.6% | 12,210 | 3.5% | 349 | 0.1%p |
| | 실기/실적위주 | 21,865 | 6.3% | 21,846 | 6.3% | 19 | 0.0%p |
| | 기타 | 4,574 | 1.3% | 4,676 | 1.3% | -102 | 0.0%p |
| 수시 소계 | | 275,864 | 79.9% | 275,834 | 79.6% | 30 | 0.3%p |
| 정시 | 수능위주 | 63,901 | 18.5% | 65,234 | 18.8% | -1,333 | -0.3%p |
| | 실기/실적위주 | 4,726 | 1.4% | 4,859 | 1.4% | -133 | 0.0%p |
| | 학생부위주(교과) | 317 | 0.1% | 301 | 0.1% | 16 | 0.0%p |
| | 학생부위주(종합) | 219 | 0.1% | 190 | 0.1% | 29 | 0.0%p |
| | 기타 | 167 | 0.0% | 163 | 0.0% | 4 | 0.0%p |
| 정시 소계 | | 69,330 | 20.1% | 70,747 | 20.4% | -1,417 | -0.3%p |
| 합계 | | 345,194 | 100.0% | 346,581 | 100% | -1,387 | 0.0%p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은 ①수시-학생부위주(교과), ②수시-학생부위주(종합), ③수시-논술위주, ④정시-수능위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모집비율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모집비율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은 없는 편입니다. 교육부의 규제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규제가 지금과 같다면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상태로는 크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입학사정관 A

입시전형은 교육부(대교협)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전형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늘리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몇몇 대학들에서 논술고사를 부활하였지만, 본교의 경우 논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논의가 일절 없습니다. 다만, 개편안의 주요 사항에 맞물려 있는 교과, 수능 전형의 경우 일정부분 변화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담당자들의 초기발상 정도이지 아직까지는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번년도 보다 2027학년도 시행계획을 준비하는 기간에 본격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입학사정관 D

학생부종합전형은 소폭 확대 또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과전형을 소폭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나 학생 변별의 문제가 있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높이기도 어렵습니다. 경쟁률에 따라 미등록 충원 및 입시결과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아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도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선발인원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시 또한 미등록 충원 및 입시결과 관리, 이탈률 및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학교도 정시 비율을 교육부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만 맞추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E

대학의 자율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모집인원 비율에 대한 변화를 대학이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부(대교협)의 제한이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표 IV-2>에서 보듯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현재 비율이 2028학년도 대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나 무전공 모집 확대처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큰 변화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학교유형별 유/불리에 대한 인식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학교유형에 따라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기존 내신체제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자사고 학생들에 비해 높은 내신 등급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시모집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내신체제가 5등급제로 개편됨에 따라 등급의 차이가 줄어들고, 상대적인 서류평가에서 유리한 특목·자사고의 학생들에 비해 일반고가 불리해질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수시 입시에서 특목·자사고가 불리했던 것은 교과 내신 성적이 일반고에 비해 다소 낮았던 것인데, 2028 대입개편안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내신 체계가 개편된다면 일반고에 비해 크게 내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최저를 강화한다면 수능에 강점이 있는 특목·자사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도 일반고와 특목·자사고의 창체나 세특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만큼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어 서류평가에서 세특이 강화된다면 더욱 특목·자사고 학생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입학사정관 C

상위권 대학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위권 대학의 경우 유/불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위권대학은 내신체제 개편에 따라 일반고의 1~2등급 학생과 특목/자사고의 2~3등급 이하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학교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 기록의 측면에서 특목/자사고가 유리하긴 하지만, 특목·자사고의 등급이 낮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교수님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E

학생 성취 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 평가 시행으로 내신(교과성적)에 대한 대학의 변별력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수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되면서, 수능 공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교과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특목고 및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입학사정관 G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특목·자사고의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특목·자사고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차이가 발생할 뿐,

그 외 대학은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학사정관 E의 의견처럼, 대학에서 일반고 1~2등급 학생과 특목·자사고의 2~3등급 이하 학생이 경쟁할 경우 기준과 같은 평가방식이 적용된다면 합격비율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능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교육과정과 생기부 기록에 내실을 갖는 학교가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4) 수시모집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현재 수시모집에서 각 대학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등 입시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조정을 하는 실정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내신체제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더욱 촘촘해짐에 따라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 별의 어려움을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로 보완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내신체제 개편에 따라 정량적인 교과 내신에 대한 변별력은 축소되어 추가적인 전형요소가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말 그대로 Pass/Fail성격이라 너무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활동, 교육과정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대학에서는 꾸준히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걸고, 수능이 수시에 영향을 덜 미치기를 원합니다. 입시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최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교육적 측면에서는 상위권대학은 3합 70이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수능최저를 높이기보단, 교과 정성평가로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발 평가에서는 무엇보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입학사정관 B

현재로써는 ‘아니오’라고 답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내신체제 개편으로 학생 별이 안 된다면, 혹은 현재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특정 대학 및 특정 학과에 선호도가 높다면 해당 대학의 전형은 최대한 가능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 봅니다. 변수가 다양하지만, 현재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기준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 D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을 수 있으나 부담이 높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 및

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입시결과 및 경쟁률, 미등록 충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교에서는 기준보다 수능 준비 노력이 과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점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통한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E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입시결과, 경쟁률, 미등록 충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대학들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등 다른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기조도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5) 선택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정성평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선택 과목 수가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46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5개로, 19개 과목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전공·과목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를 설계해나갈 수 있는 지원과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일부 대학에서 계열별·학과별 권장과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참고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이수과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택과목수 증가로 인한 선택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정성평가가 어떻게 변화될지 질문하였다.

본교는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4가지(학업역량, 전공역량, 발전역량, 공동체역량)의 평가요소를 가지고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생기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기에 계열에 맞는 이수가 권장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모집단위 계열에 맞는 이수 지원자가 대부분일 경우 해당 부분은 변별력이 약하겠지만, 일정수준 이하라면 계열에 맞는 이수 지원자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에서는 적정한 계열적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과정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입학사정관 D

인문계열은 기존과 같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부종합 지원자의 경우는 선택과목 이수여부가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고교에서의 기초학업역량과 관련 과목 이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계열에 맞는 과목 이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교의 상황에 따라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 개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 대학의 경우 일반선택 과목 위주로 이수여부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로선택과목도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수인원에 따른 성적의 유/불리 때문에 고교에서도 과목을 무한정 개설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고에서는 일반선택과목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이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E

수능, 내신 별별력 약화에 따라 대학에서 수시 교과전형과 정시수능전형 선발시 선택과목 이수 여부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학 학과별로 세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공계열 혹은 자연계열에서 심화수학 등을 지정하는 등 진로선택과목 권장과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학사정관 G

아직까지는 현재의 방법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다.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이수 여부가 평가에 계속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개설할 수 있는 선택과목이 많아져도,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할 수 없는 학교의 상황을 대학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계열에 따른 권장과목을 일부 대학에서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여러 대학에서도 개별·공동연구 등을 통해 필수·권장 과목 등을 지정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주요 쟁점이었던 심화수학은 수능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이수했는지를 평가요소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한 입학사정관도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완전 적용된 이후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수권장 과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수시-학생부위주(교과)전형 영역

1) 수시-학생부위주(교과)전형(이하 교과전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교과전형은 학생들의 교과성적을 가장 큰 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으로서, 내신등급의 영향이 가장 크다. 기존 9등급제에서는 학생들의 변별이 수월하였지만 5등급제로 개편됨에 따라 면접을 추가하거나, 서류평가를 추가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대표적으로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 일부대학에서는 이미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교과전형에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교과전형을 설계하는데 있어 대학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신체제개편에 따라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축소되고, 1등급대 학생이 기존 4%에서 10%로 증가하는 등 단순히 내신등급만을 가지고 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전형의 평가 요소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학에서는 교과전형에 면접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그럴 경우는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교과전형의 장점이 효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이 낮고, 충원률이 200% 이상이 되어 뽑으려던 학생들이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굳이 면접으로 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A

아직 내신등급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내신체계 변경에 따른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시뮬레이션 연구 이후 정량평가만으로도 변별력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 정성평가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평가 요소를 도입할 때는 최저수능보다는 정성평가 도입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학사정관 D

교과전형에 면접을 추가하는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는게 좀더 손쉽게 선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최상위권 대학은 1등급대 학생들 안에서 변별을 하는 게 어려워져 정성평가 도입을 고민하는 대학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성평가에서 이수 과목이나 교과세특 정도만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합격자를 걸러내는 정도만 사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입학사정관 F

입학사정관들은 공통적으로 교과전형에 면접요소를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과전형의 특징이 효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라는 것인데, 면접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대학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보인다. 또한 내신등급만으로 변별이 어려운 대학은 1등급대 학생들이 쓸리는 대학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대학들은 추가적인 요소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대학은 기준처럼 내신등급으로 충분히 변별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자체 시뮬레이션 등 추후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요소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최저학력 기준 또한 앞서한 질문의 답변과 같이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시-학생부위주(종합) 전형(이하 학생부종합전형)처럼 서류 평가가 확대되면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간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권장 과목 이수 여부 확인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할 가능성성이 높다.

2) 내신과목(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병기)의 절대평가 반영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예체능·교양·융합선택과목(사회·과학)을 제외한 전학년, 전과목에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게 되어있다. 예체능·교양·융합선택과목(사회·과학) 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한다.

이에 따라 모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는 상대평가(1~5등급)와 절대평가(A~E)를 함께 기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대학에서 절대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하였다.

〈표 IV-3〉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확정)

| 구 분 | 절대평가 | | 상대평가 | 통계정보 | | |
|--------------|------|-----------|------|--------------|------|------|
| | 원점수 | 성취도 | 석차등급 | 성취도별 분포비율 | 과목평균 | 수강자수 |
| 보통교과 | ○ | A·B·C·D·E | 5등급 | ○ | ○ |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 | A·B·C·D·E | - | ○ | ○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 | A·B·C | - | - | - | - |
| 교양 | - | P | - | - | - | - |
| 전문교과 | ○ | A·B·C·D·E | 5등급 | ○ | ○ | ○ |

(교육부, 2023)

시도교육청, 고교에 따라 절대평가의 분포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평가 등급, 절대평가 원점수, 이수자 수 등 여러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환식을 만들 수 있다면 대학마다 내신에 대한 변환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 B

석차등급으로 나오는 과목 내신을 해석하는 보완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과 내신은 낮지만 성취도가 A이고, A의 성취도 분포비율이 높은 경우는 해당 교과목 지필시험이 쉽거나, 반대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대학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C

교과전형에서는 상대평가 위주로 반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과 달리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위 N개 과목 반영, 융합선택 미반영, 융합선택만 절대평가 상위 N개 치환 반영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정성적으로 함께 평가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진로선택, 융합선택과목의 경우 이수인원에 따라 성적의 유/불리가 나타날 것이므로, 절대평가를 함께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취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 E

입학사정관들 대부분 절대평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로 반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과전형에서는 기준과 같이 내신등급만을 반영하고 절대평가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진로선택과목의 A, B, C 등급간 분포비율을 대학이 정성평가시 활용하는 것처럼,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 C의 의견처럼 절대평가의 성취도 분포비율은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이는 고등학교에서 평가기준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수시-학생부위주(종합)전형 영역

1)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교과성적 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등 학교생활의 전반 모두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전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 연구되었고, 대학별 가이드북도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1등급대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의 경우, 교과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이를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입시결과를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간 합격자의 내신등급이 특정 구간에 몰려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내신체제개편으로 인해 1등급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경우 학업역량 측면에서 내신 등급의 차이가 거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합격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기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기준 1, 2등급의 합이 11%였는데, 2028 대입에서는 1등급이 10% 이므로 비슷하게 생각하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등급제로의 개편이 1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더 심한 교과내신 경쟁을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5등급으로 완화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업부담감이나 경쟁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선택과목 이수에 대한 중요도는 감소되는 분위기이고, 주요교과의 학업역량이 높은 학생들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내신 성적 유/불리를 고려한 선택교과 쓸림현상이 생겨,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때 등급보다는 원점수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서류평가의 요소 중 정량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마다 상이하겠지만 본교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과목의 이수여부에 대한 부분보다 어떻게 이수했고 학생의 역량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교과세특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사정관 B

변경된 기준을 단순하게 보아도 34% 이상의 학생이 1-2등급 학생 비율로 발생합니다. 현재 기준의 1-4등급 학생들도 수도권 주요대학 쓸림현상이 있는 관계로 갑작스럽게 제도변화에 따른 수도권 대학으로의 쓸림 현상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의 중심적인 방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겠으나, 변화하는 제도에 적합하도록 평가방식 개선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과활동의 영향력은 좀더 축소되고, 교과세특은 이수과목과 연계하여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학사정관 D

현재 서류평가 요소는 거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의 요소와 반영비율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평가방법이 변화할 수는 있다고 예상해봅니다. 기초학업역량에서는 등급 뿐 아니라 원점수, 평균 및 이수인원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교는 24학년도부터 '탐구역량'을 강조해 왔습니다. 즉, 자신의 진로 관심을 바탕으로 연계활동을 수행하여 '지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교과세특 등 비교과활동을 통해 학생의 지적인 호기심과 성장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주요개념과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결합하여 탐구활동을 수행하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시 관심을 확장하여 교과와 연계한다면 지적으로 큰 성장을 보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수 과목 선택 및 수업시간에 수행하는 탐구활동의 주제선정, 이를 통한 학습 내용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과세특이 더 중요해질수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상향평준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접을 통해 생기부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변별해야 할 필요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입학사정관 E

기준과 같이 생기부 기재 항목에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평가요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공통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대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평가방식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상황에서 다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준과 같이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중심으로 약간의 용어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큰틀에서 바뀌는 부분은 없어보인다. 다만, 교과세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비교과영역(창체활동)과의 연계와 교과간의 연계, 깊이있는 탐구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특이 되려면 결국 수업, 평가, 기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2)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역 및 학교별 차이에 대한 인식

인천지역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시행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을 적극 지원하였고, 다른 지역대비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지역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다른지역과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의 기록 측면에서 어떤 교사를 만나고 어떤 프로그램과 비전이 있는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생기부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학생부종합전형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우려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 또는 학교나 교사가 얼마만큼 종합전형을 이해하고, 평가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이기도 하다. 내신등급에 비해 생기부 기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수록, 평가·기록하는 교사의 역량 또는 학교의 환경에 따라 지역 및 학교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우려에 대해 입학사정관의 생각을 질문하였다.

이미 생기부가 상황평준화 되어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오히려, 고교 블라인드 처리로 인해 학교유형의 확신을 갖기 어려운면이 있어 변별이 힘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임 사정관보다 위촉 사정관의 비율이 높아, 평가자 역량차이도 있는 편입니다.

- 입학사정관A

이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시작된 이후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아직 지역별/학교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역량이 받쳐주어야 나올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면접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사정관 E

학교간의 차이, 교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교사의 평가가 큰 비중을 갖지 않습니다. 교과 간, 학년 간 그 학생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찰의 결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 교사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 기회를 주고, 노력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속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의지도 가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또 성장하는 모습도 담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뭘 할 수 있음' 이런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왜 학생들이 궁금해했고 어떻게 수업을 통해서 풀어나갔는지, 독서든 워든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이 상향평준화가 되긴 했지만 한계점이 보입니다. 성취기준 중심으로 기록되는 선에서만 상향이 됐고 그 이후의 모습들은 잘 담겨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기술이 나타나려면 그 수업 안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개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업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기부의 기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사정관 F

지역 및 학교에 따른 차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입학사정관들은 조심스러워 했으며, 생기부의 기록이 상향평준화 된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였다. 생기부 기록은 일부 특정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사들이 3년에 걸쳐 학생을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며 평가한다고 하였다. 입학사정관들이 말하는 경쟁력 있는 생기부 내용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를 기록 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요구된다.

3)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목 증가로 인한 평가방식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과목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대로 학생의 선택권이 더욱 강조되며, 학생들의 희망 진로 학과나 계열에 따른 이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과목 수 차이는 다음 <표-IV-4>와 같다.

<표 IV-4>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수 비교

| 구분 | 국어 | | 수학 | | 영어 | | 사회 | | 과학 | |
|-------|------|------|------|------|------|------|------|------|------|------|
| | 2015 | 2022 | 2015 | 2022 | 2015 | 2022 | 2015 | 2022 | 2015 | 2022 |
| 일반 선택 | 4 | 3 | 4 | 3 | 4 | 3 | 9 | 4 | 4 | 4 |
| 진로 선택 | 3 | 3 | 4 | 5 | 4 | 5 | 3 | 9 | 7 | 8 |
| 융합 선택 | - | 3 | - | 3 | - | 3 | - | 6 | - | 3 |
| 합계 | 7 | 9 | 8 | 11 | 8 | 11 | 12 | 19 | 11 | 15 |

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의 수는 46개였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5개로, 19개 과목 수가 증가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단위 과목이 많아 교과세특도 1년 단위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학기 단위로 과목이 편성되어 교과세특의 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입장에서 평가 할 수 있는 기록이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근래 대학교에 제공되는 전형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평가에 어려움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형자료가 확대된다면, 조금 더 좋은 평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세특의 기록을 더욱 꼼꼼히 보게 될 것으로 보이며, 분절되는 기록이 아닌 학기단위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결과와 평가를 받았는지 연계성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 D

본교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탐구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특의 글자수가 증가할 경우 학생의 개인적인 면모가 더 잘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탐구활동의 주제선정 동기, 자료수집방법, 어려운 점, 해결방법 등 자기주도적 학습 노력이 잘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또한 학기 단위별로 학생의 변화, 성장하는 모습이 잘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로가 변경된 학생도 생기부의 설득력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입학사정관 E

교과세특 내용이 증가한다고해서 대학의 정성적 평가방식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기 단위 세특이 늘어난다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지원자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성적 종합평가가 하나의 요소, 하나의 자료만으로 학생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을 이해하고 해당 역량을 파악하는 중요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G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수상 기록과 독서활동 등 대학에 미제공되는 요소가 많아지면서 대학에서는 학생을 변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흐름속에서 교과별 학생의 특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교과세특의 과목수가 늘어나고 학기별로 기록된다는 것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평가할 과목이 많아지는 것일 뿐 평가방식이나 요소가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학생에 대한 기록을 기준보다 더 많은 교과에서 학기 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교사가 평가기록을 작성함으로써 학생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세특의 기록은 정성평가에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쟁력 있는 생기부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별화가 기록되고 역량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담길 수 있는 교과 수업-평가-기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과목별 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의 대입자료 추가 제공에 대한 인식

대입에서 수상기록, 독서활동 등 생기부의 제공 내용이 축소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대학의 입장에서 평가 할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하지만 작년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023.6.21.)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공동교육과정 포함) 및 과목별 학습내용·평가방법 등을 대학에 추가 제공’하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서는 ‘교사 평가역량 강화 및 논·서술형 내신평가의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선진적 대입기반 구축·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2028 대학입시부터 생기부 양식이 변화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으며, 대학에 제공되는 내용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에따라 과목별 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이 대학에 제공된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하였다.

교과 학습을 평가요소로 구분해보면, 학습 태도, 학습 과정, 학습 결과로 볼 수 있을텐데 그 학습의 전제가 되는 교과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운영이 강의식 수업인지, 지필고사만으로 성적 평정이 이뤄졌는지 등 기본적인 교과목 정보 제공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업 형태에 따라 세특을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C

과목별 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은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 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는 ‘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업 내용과 평가방법을 적용했더라도 학생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소화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이 달라질 경우 교사가 그 학생을 더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솔직하게 기재한 내용이 종합전형평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E

저희가 알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학교마다 수행 평가의 비중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평가되어 채점되는지, 기본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입니다. 대학이 원점수를 본다고 하니, 일부러 원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고등학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대학에 제공된다면 이를 참고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학생의 성장 모습이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의 선택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나이도가 어땠는지 등 이런 내용들이 제공 된다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F

각 과목에 대한 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이 제공된다면 각 대학은 이를 유의미한 정성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제공될지 정해진 것이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제공되는 내용에 따라 교과세특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을 변별하고 평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입학사정관 E의 의견처럼, 교과세특은 학습내용과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성장이 담길 수 있는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수시-논술전형 영역

1) 수시-논술전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변별의 어려움이 논술전형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고사인 논술전형을 규제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논술전형을 신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비교해보면 논술전형을 신설한 대학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술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수는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논술전형 실시대학의 수

| 2024학년도 | | 2025학년도 | | 2026학년도 | |
|---------|-----|---------|-----|---------|-----|
| 대학 수 | 38개 | 대학 수 | 42개 | 대학 수 | 44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표 IV-5〉와 같이 논술전형을 신설하는 대학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흐름에 따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으로 인해 논술전형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고, 논술 전형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있어 논술전형 확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술전형이 확대된다면 학업역량이나 사고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C

고교기여대학 사업에서 논술 전형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늘리면 패널티가 세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논술전형이 부활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의 기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신설한 학교에 대해 패널티가 없다면 늘리거나 신설하는 학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이 변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별력이 높은건 사실이라 종합이나 교과로 지원할 수 없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입학사정관 F

논술은 사교육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교육부 정책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축소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변별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논술전형을 갑자기 확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술전형 운영 및 변화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나, 이는 교육부 정책과 연계한 지원 사업 추이에 따라 대학들이 논술 전형 방향을 고려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입학사정관 G

논술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이 논술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논술전형이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

하는 변별력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현재 선발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논술전형의 확대여부는 대학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마. 정시-수능전형 영역

1)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과목에 제2외국어·한문을 제외한 선택과목이 모두 사라지고, 공통 과목들로 통합된다. 가장 큰 변화로는 수학과목의 변화와 사회·과학 탐구과목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변하는 부분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선 학과의 계열을 구분하여 수능점수 반영비율을 달리하거나 가산점을 주고 있다. 2028학년도 정시선발이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통합수능에 따른 성적처리 방법이 과목별 반영비율 정도로 조정될 것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을, 인문/상경 계열은 국어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겠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정시 전형이 수능+생기부를 반영하는 등 큰틀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시에서 N수생이 불리해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학사정관 B

통합사회, 통합과학 문제 출제 난이도에 따라, 너무 쉽게 출제된다면 사회와 과학의 비율을 좀 낮게 하고,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반영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에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C

이번 개편으로 수능에선 선택과목 폐지, 심화수학 배제 등으로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 대학에서는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기초학업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이공계열의 학과에서는 고교 내신에서 심화수학 관련 과목을 이수했는지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학사정관 G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고,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여 융합형 학습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수능과목이 개편되었다. 수능과목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지만, 각 과목의 반영비율은 기존과 같이 학과 계열에 따라 다르게 반영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특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 점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 나이도에 따라 사회, 과학의 반영 비율이 감소하고, 대신 국어,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수능과목 개편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느끼는 일부 대학은 수능전형에 생기부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반영요소의 변화가능성도 예상하였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결국 수능과목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은 심화수학을 교과수업으로 선택·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대학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희망 전공 계열에 따라 심화수학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보인다.

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학사정관들의 종합적 의견 분석

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바라보는 입학사정관들의 시선과 생각은 조금씩 다를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일반고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포괄적인 부분에서 종합적 의견을 물어보았다.

2028 대입이 개편이 되더라도, 여러 유형에 따른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라도 각 전형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는 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40% 정시비율이 줄여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수능 공통과목체제는 실질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대가 되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 입학사정관 A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2028 대입개편안에서는 전형별 축지와 선발 방법의 특징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선발 방식, 선발 근거가 모두 모호해졌기 때문에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차별화를 두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생각해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반고의 생활기록부에는 진로적합성을 교과세특에 녹이기보다 교과역량 중심으로 서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학생을 평가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과정 편성 또한 지역과 학교 수준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 B

사교육 유발을 없애려는 축지의 시도로 이뤄진 이번 대입개편안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변별력 확보 문제로 대학별고사, 수능최저 등의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면서 수험생 부담 및 사교육 유발은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이 나오면 치명적일 수 있어, 교과 내신도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준비하여 사교육 유발 원인은 그대로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들은 대입전형에 대한 부담, 고교 교사는 세특 기재에 대한 부담, 수능 지도에 대한 부담, 대학은 우수 학생 선발에 대한 부담 및 대학별고사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학생, 교사, 대학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고교학점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C

상위권 학생의 경우 1~2등급에 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은 더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로 관심 활동이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학습방법의 변화를 통한 지적인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입시전형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처럼 기본에 충실했 것을 조언하고 싶습니다.

입학사정관 E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수능과목의 개편으로 인해 수능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능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유지되고 정시 전형 선발 비율이 축소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수능 지도를 위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신 체제 개편으로 인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 학생들의 내신관리 부담은 늘어나고, 학생부의 기록은 더욱 중요해져 교사의 기록에 대한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입학사정관들은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원하고 있었고, 고교학점제 취지와는 다른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입학사정관 모두 교과세특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나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하겠지만, 학생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학생부 정성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요약 및 시사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대학의 입시전형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각 전형별 모집비율의 변화 가능성,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논술의 변화 가능성, 정시 수능전형의 변화 가능성, 각 전형별 평가요소나 평가방법의 변화 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입학사정관들의 심층면담 결과를 5개의 영역으로 요약하여 각 영역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대학의 준비 상황은 아직 연구 시작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대학의 연구가 진행되고 나면 구체적인 대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전형별 모집비율은 현재 교육부, 대교협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대학에서 자체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등학교 유형별 유/불리에 대해선 내신 체제 개편에 따라 생기부의 정성평가가 중요해질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일반고보다 특목·자사고 학생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할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선택과목의 수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비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이수과목에 따른 정성평가의 변화가능성은 지금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입학사정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과목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평가요소나 방식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희망 계열이나 학과에서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나, 그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고 성장했는지 등, 기준의 방식과 비슷하게 평가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명에 맞게 계열별·학과별 권장과목을 대학에서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희망 분야나 계열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 필요해진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교·강사를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과전형은 평가방식과 평가요소의 추가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입학사정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과전형에서 2·3등급대 이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내신등급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1·2등급대 이상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더 이상 내신등급만으로 교과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았다. 기존 1·2등급대 학생들이 2028 대학입시에서부터는 1등급으로 개편됨에 따라 1등급끼리의 경쟁으로 변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대학의 경우 교과전형에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등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교과 정성평가와 같은 서류평가의 도입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있었으며, 면접은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의 강화 또한 지금의 수준에서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성평가 도입이 가장 유력해보였다. 내신과목의 절대 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따른 절대평가 반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기존처럼 정성평가 시에만 참고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수도권의 대부분 대학에서는 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8 대학입시에서도 여전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학생 개인에게 맡길 것인지, 공교육 안에서 지도한다면 어떻게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보인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은 기준과 같이 생기부 기재 항목에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평가 요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기별로 교과목이 편성되어 교과세특을 기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기록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에서는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더욱 늘어나 교과세특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 학생을 평가·기록하는 교사의 수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역 및 학교에 따른 차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세특의 중요성은 대학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각 과목의 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이 제공될 가능성에 대해선 대학의 입장에선 학생을 좀 더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교과세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한 부분을 입학사정관들은 알고 싶어했으며, 이는 교사의 수업 방식과 평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입학사정관들의 공통적인 인식을 종합해보며 ‘교과세특의 중요성 증대’로 정리될 수 있다. 학기별 과목편성은 교과세특 내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대학에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에 교과세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세특을 중심으로 대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시-논술전형은 기존의 모집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논술전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형요소로 정부차원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논술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시-수능전형에서 각 과목별 반영비율에 대한 변화는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입학사정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난이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사회와 과학의 반영비율이 적어질수록 국어와 수학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언급하면서, 수능전형에 생기부 정성평가의 도입을 예상하는 입학사정관들도 있었다. 이는 결국 모든 전형에 고등학교 생활이 담긴 생기부의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연구

V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종합적 분석
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종합적 분석

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학교 현장의 반응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전과는 다른 급격한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중점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 대입제도의 준비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입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들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 설문 결과에서 학부모는 내신을, 교사는 수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자의 입장에서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의 차이일 뿐이다. 결국 내신, 생활기록부, 수능이라는 대입 준비의 주요 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대학 역시 기존 평가 방식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전형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생기부의 질적 수준 제고의 중요성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서 기준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생기부의 정성평가이다. 생기부의 질적 기록은 그동안도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그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입학사정관들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내신 변별력 완화에 대응하여 교과전형에서 면접 도입이나 수능최저 기준 강화 등 추가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기부 정성평가와 같은 서류평가의 도입이 우세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2028 대학 입시제도에서 요구되는 생기부 정성평가가 기존과 어떤 차별성과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2028 대입제도에서는 생기부를 통한 학생 역량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학교의 진로진학교육에서 생기부의 질적 기록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다. 인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성과, 그 이후

인천은 그동안 생기부의 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내 왔다. 2014.9.19.일자 인천광역시 교육청 블로그 인천광역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전국 최고 수준 포스트에서

“인천광역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우수한 합격 실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유은혜 의원이 발표한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의 최근 3년간 학생부종합전형 지역별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점유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이 전국 3위(인구대비 2위)인 것으로 확인”, “인천지역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의 혼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 “인천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적합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운영”, “학생들은 학교를 믿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자기주도성과 전공적합성 등을 키워나가고 있다.”

고 하며, 인천시가 종합전형에서의 성공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학교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학생의 적극적 참여로 인한 생기부 관리에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타지역의 벤치마킹으로 이제 생기부의 기록은 상향·평준화되었으며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생기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개선이 학교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진로진학지도 지원 현황

2024년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입 제도의 변화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대학입시환경에서 효율적인 적응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공·명·정·대 전략으로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공·명·정·대 전략은 공부 습관 만들기, 명확한 전략 수립, 정교한 수능 준비, 대학별고사 준비를 말한다. 공부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 수업에서 읽걷쓰(읽기, 걷기, 쓰기) 기반 깊이있는 수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은 현상, 문제, 과제, 실천을 통해서 관찰, 질문, 탐구, 행동하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방법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진로·진학·직업 설계의 기반이 되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역량중심 수업을 통해 공부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명확한

전략수립을 위해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발표에 빠르게 대응하여 2024년 3월부터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6회 실시하는 등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주요내용과 진학준비 전략 등을 신속하게 제공했다. 또한 정교한 수능 준비를 위해 인천학력평가연구지원단(22개팀, 557명)을 구성해 단위 학교 수능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수능지도 경험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된 학력평가연구 지원단은 수능 대비 학습법 특강, 평가전문성 신장 연수, 수능 대비 교과별 학습자료를 제작·보급하여 학생들이 수능을 정교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16개팀, 322명)은 팀별로 양질의 자료를 매년 20종 이상 시기별·대상별 자료를 보급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 맞춤형 1:1컨설팅·상담실 상시운영 등 대학별 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2월에는 지역 내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진학·직업 설계를 돋기위해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 로드맵을 제공하였다. 이 로드맵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여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직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안내 자료이다. 로드맵은 중학교용, 일반고용, 직업계고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었고 학생들이 진로 적성 및 직업 정보, 진학 및 직업의 준비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QR코드로 연결이 되어 접근성을 높여 스스로 찾아가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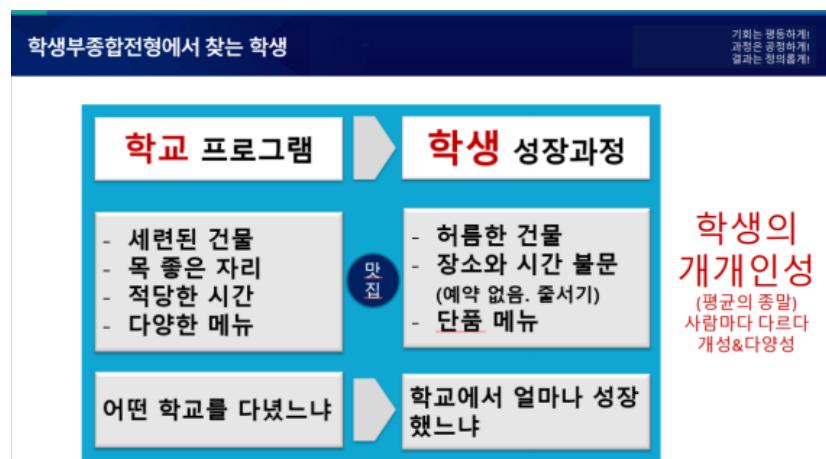
셋째, 고교-대학-교육청 연계를 통한 주체별 진로진학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걱정 없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대학-교육청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한 전공설명회, 일일대학생 체험, 수시모의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진로진학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대학 입학사정관으로부터 대입전형과 관련된 생생한 입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담당자를 초청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정보를 제공하고, 대학별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교사를 대상으로는 대학별 진학담당자 간담회와 고교별 공동 진학지도, 학생부종합전형 모의서류평가 실습연수, 진학지도 전문가양성 직무연수, 대학과 연계한 서류평가 실습연수 등을 운영하여 교사들이 대입진학지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최근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요구 변화

2023년 경희대학교의 고교 교사 대상 입시설명회에서 입학사정관은 “활동 나열식 기록이 필요하기도 하다. 양적 기록(활동 나열식 기록)과 질적 기록(학생의 역량에 대한 서술과 교사 평가)’의 균형을 맞춰 달라”고 하였으나 2024년 입시설명회에서 동일한 입학사정관은 “백화점식 활동의 나열보다는 학생의 탐구 능력이 돋보이는 2~3 개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달라”고 하여 생기부의 ‘질적’ 기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또한 해당 입시설명회 자료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Review(2023) 파트에서는 “학생이 잘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학생의 개개인성 ?”의 제목으로 ‘주제 발표 등 객관적 수업 활동의 기록이 있지만 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 개인의 활동인지 공통의 수업 내용인지’라는 내용으로 현재 여전한 학교 위주의 활동과 이의 획일적 기록으로 인해 학생의 개별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현재 생기부 정성 평가에서의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V-1]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권역별 입학설명회(고교교사-공개용) 자료

학생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활동은 그 중심을 이제 학교에서 학생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교·내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활동에서, 단순한 참여횟수를 학생의 적극성의 척도로 평가하는 양적 기록의 측면을 넘어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이 내실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기부에서 학생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자 함은 비단 경희대학교만의 요구사항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의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 탐구의 과정을 중요한 학업역량 및 진로역량의 지표로 평가하고자 한다. 과거 ‘전공적합성’이던 평가 항목은 이제 성장역량, 탐구역량, 발전가능성 등의 용어로 바뀌거나 추가되고 있으며 이는 희망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생활 중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공부할 것을 찾고, 스스로 공부를 해 내고, 공부의 과정에서 자신만의 문제해결과 사고력을 보여주며 결국 보다 성장한 학문적 지식, 사고, 태도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그에 맞춘 학업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 과정의 입학사정관들 면담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되었듯이 대학은 학문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탐구하기를 요구하며 이런 탐구활동을 바탕으로 다시 관심을 확장하여 지적 성장을 보이는 학생을 원한다. 학생 역량에 대한 이러한 변화된 요구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면접을 포함한 생기부의 정성평가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생기부의 질적 제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바. 생기부 질적 제고의 방향

학생에게 필요한 탐구활동의 시작은 학생의 학문적 호기심이어야 하며 탐구활동의 과정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어야 하기에 일괄적인 학교 프로그램의 단순 참여로 생기부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흥미와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탐구활동의 주제선정 동기, 자료수집방법, 어려운 점, 해결방법 등 자기주도적 탐구의 과정이 학생마다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기부의 정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대비는 ‘학생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도적 노력의 과정’, 즉 ‘탐구의 전 과정’이 생기부에 충실히 기록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진로 계획에 맞추어 탐구 주제를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공동체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이 과정 전부가 적절히 지도되고,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종합전형에서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주도적 탐구력 향상이 핵심적 주력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활동, 진로 및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이 개인의 진로 계획에 맞추어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활동을 진행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으나 여전히 일반고 학생들의 탐구활동은 ‘생기부 세특에 유리해 보이는’ 탐구 주제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 조사, 정리하는 ‘학습 연장’에 그치고 있다. 경험과 관찰의 부족으로 인한 호기심의 부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설사 억지로 탐구 주제를 정해 탐구의 과정을 거쳤다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자료 조사를 통한 추가 학습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에서 강조하는 탐구를 통한 성장(탐구 후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성찰적 마무리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탐구의 과정과 결과가 학생들의 삶과 생활, 흥미와 적성에 연계되지 못한 채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자료의 조사, 정리, 요약 같은 수동적인 학습에서는 유의미한 느낌과 배움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자신의 지식을 삶과 연계하여 활용하여 생각하고 호기심을 키우며, 호기심의 해결 과정에서의 경험과 배움,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 성장을 이루어낸 후 자기 성장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과정이 종합적으로 의미 있게 일어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학생의 탐구 역량 향상과 이를 통한 생기부 정성평가의 경쟁력 제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사. 진로 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탐구력과 주도성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중요해진 생기부 질적 제고로부터 시작된 탐구역량 강화 및 학생 주도성에 대한 중요성과 새로운 방향 모색은 진로 교육의 본질과도 연결된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연계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진로 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대학 입시만을 고려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나 '인기 학과' 또는 '취업 유망 학과'를 겨냥한 전략적 스펙 쌓기보다는, 무전공/자율전공 선발 확대 추세가 시사하듯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탐구 역량의 함양이 필요하다.

깊이 있는 심화 탐구의 주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자아, 학문, 삶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지적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진로 교육의 시작점이다. 진로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구의 목적과 동기를 형성하며, 학교 활동 속에서 탐구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인으로서의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돋는 과정이다. 이러한 진로 교육의 방향은 대학이 요구하는 탐구 활동의 본질적 목적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진로 교육과 진학 지도는 분리될 수 없으며,

진로 교육을 통한 자아 인식과 적성 및 진로 탐색의 과정이 깊이 있는 탐구 활동으로 이어질 때 진학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아. 탐구역량과 자기주도성 향상에 효과적인 대안 읽걷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력 사업인 '읽걷쓰'는 새롭게 요구되는 학생 탐구역량 함양의 본질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읽고, 걷고, 쓰면서 삶의 과정에 능동적이고 성찰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교육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삶의 현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며,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자기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2024,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존의 읽기와 쓰기는 단순한 자료 조사나 학습 내용 정리, 감상적 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양적 생기부 시대를 거치며 이미 보편화된 활동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읽기와 쓰기만으로는 새로운 생기부 기록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시한 '걷기'가 더해진 읽걷쓰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학생 주도적 탐구 설계 역량을 키우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발간한 '교육과정 속 읽걷쓰 프로젝트' 운영 도움 자료(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2024)는 교과 연계 수업,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및 스포츠클럽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걷기' 활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닌, 학생들이 관심 분야와 관련된 삶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질 높은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문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학년

장애인의 여가 활동²⁾

교과: 가정
주제: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하기

읽기 **쓰기** **프로젝트 흐름 한 눈에 보기**

1. 읽기

2. 쓰기

3. 프로젝트 흐름 한 눈에 보기

발달장애인의 여가활동 알아보기

우리 주변 발달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 장소 탐방하기

발달장애인 여가활동 개선을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우리 주변 나의 여가활동 장소 탐방하기
▶ 우리 주변 발달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장소 탐방하기
- 같은 장소를 선정한 학생들끼리 실제 걸으며, 여가 활동 장소 탐방 및 코스 만들기
- 분임별 발견한 여가활동 장소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하기
▶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개인적, 사회적인 차원으로 발표하기
- 장애인이 사회적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타 사례를 설명하기
- 지역의 유관 부서에 제출할 수 있는 건의문 작성하기

[그림 V-2] 읽걷쓰 운영 도움자료 예시 (1)

2학년

기후위기교육, 일상생활에서부터⁴⁾

교과: 과학, 영어
주제: 기후위기, AI로 알려요!

읽기 **쓰기** **프로젝트 흐름 한 눈에 보기**

1. 읽기

2. 쓰기

3. 프로젝트 흐름 한 눈에 보기

기후위기, 미래와 대안을 찾다

기후위기, 우리동네 문제 발견하기

기후위기, AI로 알려요!

▶ 기후위기 관련 영상 알기
▶ 우리 주변 기후위기 문제 발견
- 학교 주변 또는 우리 동네 주변 기후 위기 문제 상황 인식하기
- 동일한 장소를 선정한 학생들끼리 실제 걸으며, 기후위기 문제 상황 발견하기
- 분임별 발견한 기후위기 문제 상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하기
▶ 에듀테크를 활용한 홍보 자료 작성하기
-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경각심을 알리는 로고송을 영어 버전으로 만들기
- 기후위기로 인해 새로 생긴 직업을 알리는 카드뉴스 만들기

[그림 V-3] 읽걷쓰 운영 도움자료 예시 (2)

실생활 경험과 지역사회 참여는 지속 가능한 삶과 세계시민의식이 강조되는 현재의 중요한 교육 패러다임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리빙 랩, 해커톤, 정책제안, 기업가정신 활동의 핵심은 지역사회 기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절 높은 탐구활동의 시작점이 되며 경험적, 실천적 지식 습득의 가치를 지닌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

된 탐구활동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성찰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역량이 생활기록부에 충실히 기록된다면 정성평가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탐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함양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읽쓰 활동은 진로진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사들이 읽쓰의 취지와 의미,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 대입제도 대비를 위한 교사 연수를 계획한다면 읽쓰를 학생들의 탐구활동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방법, 이를 통한 학생들의 탐구역량 향상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반영한 학교 단위 읽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 역량 강화는 궁극적으로 2028 대입제도가 요구하는 학생 중심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또 하나의 경쟁력, 학업 역량

2028 대입제도 개편에서 수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닌,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실질적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의 변화는 학생들이 단순 암기식 학습을 넘어 깊이 있는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는 개별 교과의 단편적 지식이 아닌, 교과 간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 평가요소가 되는데, 이는 실제 사회와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능성적 향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학업역량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합적 문제해결력을 위한 교과 간 연계 수업과 융합 프로젝트,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개념 중심의 심층학습,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양할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구술·면접 프로그램 등 단순히 수능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능력과 나아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앞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진로진학교육은 비교과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하고, 교과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포괄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이번 연구에서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으로 인해 변화를 요구받거나 강조되는 부분만 다루고자 한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학생 선택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영역이 재구조화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영역별 활동 신·구 비교는 <표 V-1>과 같다.

<표 V-1>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영역별 활동 신·구 비교

| 2015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 | 2022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 |
|------------------|--|------------------|-------------------------------|
| 영역 | 활동 | 영역 | 활동 |
| 자율활동 | - 자치·적응활동 - 창의주제활동 등 | 자율·자치활동 | - 자율활동 - 자치활동 |
| 동아리 활동 | - 예술·체육활동 - 학술문화활동 - 실습노작활동 - 청소년단체활동 등 | 동아리 활동 | - 학술·문화 및 여가 활동 - 봉사활동 |
| 봉사활동 | -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등 | | |
| 진로 활동 | - 자기이해활동 - 진로탐색활동 - 진로설계활동 등 | 진로 활동 | - 진로 탐색 활동 -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 |

(교육부, 202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수업으로 구분지어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탐구력을 신장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는 진로진학교육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내용 중 내신체제 5등급제로의 개편은 내신의 변별력을 줄이고, 서류평가의 확대, 수능의 영향력 증대로 귀결된다. 따라서 서류평가의 확대는 학생 개인의 성장이 드러나면서, 탐구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학생의 성장이 담기기 위해선 과정중심평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고, 탐구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의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는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 학생들의 탐구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진로진학교육 예시방안은 <표 V-2>와 같다.

<표 V-2> 탐구력을 신장시키는 진로진학교육

| | | | |
|---------|---|--|------------------------|
| 창의적체험활동 | ⇒ | • 진로 탐색 및 탐구 주제 선정 • 자신의 진로나 흥미와 연결된 탐구활동설계 • 주제탐구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 |
| 교과수업 | ⇒ | • 진로연계 주제탐구활동 - 개별 맞춤형 진로설계 협의체 - 학생 개별 탐구활동 내용 공유 • 피드백을 포함한 과정중심평가 • 학생 개별 수준에 따른 성장중심평가 | 탐구력 신장 학생의 성장 촉진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수업은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와 문제해결중심으로 내실화 하고, 평가는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를 가급적 지양하며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2023). 학부모 인식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과 수행평가 비율 관리 등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내신평가의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 전문성을 향상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부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개별 수준을 고려한 평가를 설계하여, 각자의 출발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고교 내신체제에서는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확대된다. 이는 기준의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이 학생 수준에 맞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개별 학생의 성장 중심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생기부에서도 학생의 개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수행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중심평가 역량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모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생기부 관리'를 지목했다. 인천 지역이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거둔 성과는 자율 동아리 활성화와 교내외 대회 수상 실적 등 '양적 확대'에 기인했다. 그러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생기부 기록 축소와 기록의 상향 평준화 추세로 인해, 이제는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학생 개인의 성장을 보여주는 개별 심화 탐구활동의 '질적 관리'가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에게는 탐구주제 선정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탐구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는 교사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교사는 탐구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탐구 보고서를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완성까지의 과정에서 학생의 단계별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입 지도에 있어 교사들은 대학 입학 설명회나 입학사정관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관심 주제에 대한 독서, 시사 탐구, 실험, 프로젝트 등을 주도적으로 심화·확장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동 학년 교사를 사이에서 조차 각자의 수업에서 진행되는 학생들의 탐구활동이 거의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교과 간,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 간 학생들의 탐구활동 공유가 필수적이다.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사 협의체가 활성화 되고 더 나아가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한 협의회가 운영된다면, 학생의 진로 관심사와 탐구활동을 다각도에서 융합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마치 환자를 위해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협진하듯이, 학생의 미래와 진로를 위한 교과·비교과 교사 간의 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나. 학생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는 진로진학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인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도 반영되는 핵심 가치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으로 인한 내신 5등급제 도입은 서류평가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선택과목 수가 기존 46개에서 65개로 19과목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선택권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전공, 학과에 대한 탐색과 권장과목 이해가 더욱 중요해 진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생 수요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과수업에서도 학생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따른 학생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는 진로진학교육 예시방안은 <표 V-3>와 같다.

<표 V-3> 주도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는 진로진학교육

| | | |
|---------------------|---|---------------------|
| 창의적체험활동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탐색 및 설계 활동 • 학과(전공) 탐색 및 이해 •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 지역연계 꿈이음 대학 프로그램 • 학생 주도형 동아리 활동 | |
| 교과수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연계 주제탐구활동 • 교과연계 통합적 탐구과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주제 선정 지도 - 탐구 과정 피드백 • 삶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걷쓰교육 | ↗ 주도성과 자율성 발휘 |

학생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는 진로진학교육은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진로와 교육과정을 연계한 과목선택을 지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의 주도성을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학생의 진로와 교육과정을 연계한 과목 선택을 지도하는 측면에는 학생 개인이 진로희망에 따라 선택한 과목 중에서 3년 동안 자신이 학습하게 될 교과목에 대한 계획을 자기주도적으로 세워 구체적으로 학습 설계 전략과 함께 학교생활 전반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입학사정관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적용을 받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의 수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이수과목에 따른 정성평가의 변화 가능성이 지금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과목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평가 요소나 평가방식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희망 계열이나 학과에서 권장하는 과목을 이수했

는지, 그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고 성장했는지 등을 기준의 방식과 비슷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대신 들어난 과목 수 만큼 그 과목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과목시간에 배운 내용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어떻게 성장했고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평가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개연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더 많아진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희망 분야나 계열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며 진로설계역량을 키워 갈 수 있도록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교사의 비계설정이 필수적이다. 학생의 자아성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1회성에 그치는 진로검사·학과 검사등 검사후 검사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자아를 탐색하고 성찰해 가면서 이것이 자신의 과목선택의 의사결정까지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과목선택지도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방향과 연계된 과목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 후 그 안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학생의 진로는 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로탄력성을 갖추도록 지속적 상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을 쌓아가며 자발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느낄 것이다.

한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응하여 기존과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생기부의 질적 제고이고, 이러한 질적 제고는 학교 주도의 화려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과 영역 전반의 학생 개인의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개인 탐구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 연계 주제탐구활동 및 통합적 탐구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이 읽걷쓰 교육활동이다. 읽걷쓰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세계를 감각하고, 비판적으로 의미를 탐구하며,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일상적이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는 학습자 경험이다.(인천광역시교육청,2024). 읽걷쓰 활동은 본질적으로 실제 삶 기반의 문제 해결 학습이자 실천적 탐구학습으로 학습 맥락을 현상(phenomenon)-문제(problem)-과업(project)-실천(practice)의 4P로 이루어진다. 관찰을 통해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다가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일상 이면에서 작동하는 문제를 발견하여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하며, 구성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적합한 과제와 전략을 계획하여 심도있게 지식을 탐구하고, 탐구 과정을

통해 구성한 지식을 삶의 문제 상황에 적용, 실험, 검증해보는 학습의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의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하여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자율성과 의지, 조정 능력을 촉진한다. 따라서 학생의 메타인지와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Akkas & Eker, 2021) 따라서, 읽걷쓰 교육은 교과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주도성 및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아주 좋은 진로진학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학업역량강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

대학 진학의 측면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생각하는 인천 일반고등학교의 가장 큰 약점을 수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은 대입진학 성과에 있어 수능위주인 정시전형 보다, 생기부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능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수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왔다.

수능을 기준의 수능위주전형의 대비나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역량강화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내용 중 수능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역량이 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할 입시제도 패러다임에 발맞춰 진로진학교육의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면담에서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8 대학입시제도에서도 여전히 수능이 일반고 학생에게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교사 설문에서도 내신관리, 수능대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내실화 중 수능을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내신의 변별력이 사라지면 수능을 활용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수능이 중요하다는 점은 입학사정관의 면담 및 교사의 설문 조사를 통해 봐도 알 수 있지만, 수능이 중요한 이유를 학생들의 학업 역량 강화 측면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 수능은 과목·점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제를 폐지하는 통합형·융합형 과목체계로 변화하고 이를 통해 융합형 학습을 유도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통합사회의 예시 문항은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며,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통합과학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 기술과 관련한 실제 맥락에 적용·탐구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근거해 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과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과학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과목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 과목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변화하는 대학입시 체제에서 수능의 평가 방법이 논·서술형으로 변화하거나, 이원화된 수능체제로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기본 학업 역량을 토대로 주어진 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거나, 여러 과목의 지식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구성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변화하는 대입 패러다임에 자연스럽게 적응을 할 수 있고, 이는 곧 장기적 관점의 진로진학교육의 대응 전략이 될 것이다.

한편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은 학습동기 및 학습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예전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자기관리 능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길러져야 할 것이다. 학업역량강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을 정리해보면 <표 V-4>와 같다. 이와 같은 학업역량강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은 2028 대학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대학입시 제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표 V-4> 학업역량강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

| | | |
|---------|---|------------|
| 창의적체험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학습동기 및 학습전략 지도 • 자기주도적학습법 및 자기관리능력 | |
| 교과수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미래 대입변화의 대응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서술형 평가 설계 - 주제의 다각도 분석을 통한 통합적 답변 구성 능력 증대 ⇒ • 요구되는 핵심 학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핵심개념과 원리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여러 과목 지식의 통합적 연계 능력 - 종합적 사고력 개발의 필요성 • 방과후 수업 등 수능지도 확대 | 학업역량 강화 |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부모와 고교 교사, 그리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대상을 제한하여 진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들 집단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지, 대학 입시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고의 진로·진학 방향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대학입시제도는 2028년도 대학 입시를 치루게 될 학생 뿐만 아니라 재수생과 사교육 담당자 및 일반 시민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상과 내용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2028 대학입시개편에 따른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을 일반고로 한정한 것은 특목고, 자사고와 비교하여 살아남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다. 대입제도 개편이 특목고·자사고에 유리하다, 아니다의 논란을 떠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일반고는 어떻게 진로진학교육을 해 나갈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이 시점에도, 현 수능을 둘로 쪼개고 둘다 9등급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수능 이원화에 대한 검토나, 고등학교 내신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되, 각 급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문제출제와 평가를 하는 내신외부평가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국가 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발전 전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보았을 때,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탐색한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이 제한된 외적 타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은 대학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렇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서 제시하게 되는 목적과 맥을 같이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대학입시를 위한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기보다 입시제도를 바꿔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즉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를 위한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언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자녀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학부모에게도 필요하다.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진로에 맞춰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이므로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서는 상대평가의 등급이 5등급 체제로 완화 되었으니, 무조건적으로 성적만을 강요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탐구하고 싶어하는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학기 초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수업 진도를 정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양식이 수업과 평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공시되었다. 내년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교수학습과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 및 평가 설계의 과정에서부터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때 학교현장의 반응은 비효율적 업무처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불필요한 작업을 하게 하느냐의 시선보다는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관점에서 수업과 평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으로부터 시작하여 논·서술형평가의 대비, 생기부의 질 제고 등 대학입시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역량이 교사에게도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잘 스며들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 면담의 결과 현재 학교에서 수능 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부정적 의견이었고, 그 이유로 퀄리문항의 출제,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수준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학교 교육과정의 한계와 생기부 중심의 종합 전형 위주 대입 준비로 수능에 소홀했던 인천의 전략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정교한 수능 준비를 위해 인천 학력평가연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수능대비학습법 특강, 평가전문성 신장연수, 수능대비 교과별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단위학교의 수능지도를 지원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수업과 평가를 바꾸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질문과 생각을 담는 수업 나눔, 수업·평가 교사학습공동체운영, IB관심학교, 인증학교 등의 많은 노력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평가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정중심평가 및 수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수행평가의 비율 확대, 관리자 및 교사연수를 통한 인식 개선등 교사가 스스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청의 혁신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왜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정책이 엇갈리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다양한 교육청의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와 닿지 않는 지원들은 허공 속의 메아리일 뿐이다.

실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진로진학교육을 함께 있어 자율성을 갖고 책임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변화할 대학입시에서도 흔들림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며 진로를 설계해나갈 수 있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2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
- 황우원&조원기 (2024).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의 정량평가 방향. 고등교육 Journal of Higher Educational Research 7(1), pp. 131~163
- 김택형, 안병훈, 김기수(2023)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고교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30집 제1호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Vol. 30. No. 1. (March, 2023), pp. 31-64.
- 김용 (2024). 공정한 대입 제도와 불공정한 교육의 제도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대학: 담론과 쟁점. Vol.2024 No.1, 58-7
- 신소영 (2023). 윤석열 정부의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개편 방향. 교육비평, 51호, 78-122
- 한국대학신문 2024.08.01.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선결 과제는?
- 교육플러스 2024.09.25. 교디연·실교모,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교육계획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이데일리: 2024.01.31. 논·서술형 수능은 가야할 길. 공정성 확보는 숙제
- 경향신문 :2024.09.26. 2028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문항공개, 고교학점제 취지 훼손 우려
- 서울교육 교육정보 2024 여름호(255호) 수업-평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관련) 개정안내
- 중도일보 2023.10.15. 중2 학부모들 83% 특목 자사고 선호도 증가할 것, 중요해질 과목으로는 수학 <종로학원 2028 대입 개편 시안 학부모 여론조사>
- 한국교육문화뉴스 2023.10.24. 고등교사 설문조사,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87.2% 반대 의견
- 연합뉴스 2023.10.25. 교육부 학부모 모니터단 71% 2028 대입 개편 시안 긍정 평가
- 전자신문 2024.10.24. 에듀플러스
- 2028 대입 개편안, 초5~중2 학부모에게 물었다. '긍정적이지만 특목자사고 쏠림과 사교육 부담 증가 대학 자율권 확대되야'
- <서울 수도권 거주 초5~중2 학부모 200명 대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 서울대학교 (2024).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전형 개편을 위한 대입정책포럼 성료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 경희대학교 (2024). 2024학년도 권역별 입학설명회(고교 교사-공개용) 자료. 경희대학교
- 교육부 (202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 김한별 (2012).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조병영, 임태원 & 배수아 (2024). 학교를 삶으로 읽는 교육의 개념적 틀에 관한 기초 연구 2024-현안-02, 인천 교육-2024-0119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2024).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과정 속 읽는 프로젝트』 운영 도움자료. 인천남부교육 -2024-0013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Sociology Press.
- Boyce, C., & Neale, P. (2006).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 guide for designing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for evaluation input. Watertown, MA: Pathfinder International.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연구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발 행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우)21554
 <http://www.ice.go.kr>
 032-423-8232
I S B N 978-89-6960-098-1 (비매품)

※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